

2015. 4월



어린이 행복도만족도 설문조사 항목별 세부분석 자료



주 민 복 지 국
어린이행복과

1 설문조사 대상

■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31개교에 재학 중인 2학년, 4학년, 6학년 학생 2,910명

◆ 초등학교 현황 및 빈도

(단위:명)

지역별	학 교	성 별			학 년			
		남학생	여학생	전체	2학년	4학년	6학년	전체
가 지역 (농촌학교)	개정초	15	21	36	14	10	12	36
	내흥초	3	1	4	2	0	2	4
	금암초	3	2	5	2	3	0	5
	나포초	15	16	31	8	9	14	31
	당복초	51	27	78	33	29	16	78
	대야초	40	29	69	23	27	19	69
	대야남초	0	4	4	1	0	3	4
	마룡초	2	4	6	1	3	2	6
	발산초	14	8	22	5	8	9	22
	서수초	9	7	16	5	7	4	16
	성산초	17	17	34	13	11	10	34
	술산초	5	7	12	2	7	3	12
	오봉초	5	4	9	3	4	2	9
	옥구초	28	13	41	13	16	12	41
	옥봉초	22	13	35	14	9	12	35
	옥산초	13	9	22	3	12	7	22
	임피초	6	9	15	2	7	6	15
	창오초	5	5	10	6	2	2	10
해성초	7	1	8	0	3	5	8	
회현초	41	39	80	31	23	26	80	
나 지역 (동군산)	경포초	185	143	328	92	102	134	328
	구암초	82	80	162	60	49	53	162
	동 초	100	89	189	71	75	43	189
다 지역 (중부)	나운초	81	61	142	53	32	57	142
	서해초	293	291	584	164	208	212	584
라 지역 (서군산)	미성초	55	51	106	29	37	40	106
	산북초	135	144	279	81	102	96	279
	문창초	91	87	178	158	14	6	178
	소룡초	148	154	302	0	145	157	302
	서 초	12	11	23	5	3	15	23
	미룡초	41	39	80	30	27	23	80
전 체				2,910	전 체			2,910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구 분		인원(명)	비율(%)	그 래 프																							
전체인원		2,910	100																								
아 동 성 별	남학생	1,524	52.4	<table border="1"> <caption>아동성별 분포</caption> <thead> <tr> <th>성별</th> <th>인원(명)</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남학생</td> <td>1,524</td> <td>52.40%</td> </tr> <tr> <td>여학생</td> <td>1,386</td> <td>47.60%</td> </tr> </tbody> </table>	성별	인원(명)	비율(%)	남학생	1,524	52.40%	여학생	1,386	47.60%														
	성별	인원(명)	비율(%)																								
남학생	1,524	52.40%																									
여학생	1,386	47.60%																									
여학생	1,386	47.6																									
아 동 학 년	2학년	923	31.7	<table border="1"> <caption>아동학년 분포</caption> <thead> <tr> <th>학년</th> <th>인원(명)</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2학년</td> <td>923</td> <td>31.70%</td> </tr> <tr> <td>4학년</td> <td>983</td> <td>33.80%</td> </tr> <tr> <td>6학년</td> <td>1,004</td> <td>34.50%</td> </tr> </tbody> </table>	학년	인원(명)	비율(%)	2학년	923	31.70%	4학년	983	33.80%	6학년	1,004	34.50%											
	학년	인원(명)	비율(%)																								
	2학년	923	31.70%																								
4학년	983	33.80%																									
6학년	1,004	34.50%																									
4학년	983	33.8																									
6학년	1,004	34.5																									
부 모 연 령	어머니	30대	1,205	41.4	<table border="1"> <caption>부모연령 분포</caption> <thead> <tr> <th>연령</th> <th>성별</th> <th>인원(명)</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30대</td> <td>어머니</td> <td>1,205</td> <td>41.40%</td> </tr> <tr> <td>아버지</td> <td>517</td> <td>17.80%</td> </tr> <tr> <td rowspan="2">40대</td> <td>어머니</td> <td>1,705</td> <td>58.60%</td> </tr> <tr> <td>아버지</td> <td>2,101</td> <td>72.40%</td> </tr> <tr> <td>50대</td> <td>아버지</td> <td>292</td> <td>10%</td> </tr> </tbody> </table>	연령	성별	인원(명)	비율(%)	30대	어머니	1,205	41.40%	아버지	517	17.80%	40대	어머니	1,705	58.60%	아버지	2,101	72.40%	50대	아버지	292	10%
		연령	성별	인원(명)		비율(%)																					
	30대	어머니	1,205	41.40%																							
		아버지	517	17.80%																							
	40대	어머니	1,705	58.60%																							
		아버지	2,101	72.40%																							
50대	아버지	292	10%																								
40대	1,705	58.6																									
아버지	30대	517	17.8																								
	40대	2,101	72.4																								
	50대	292	10.0																								

2 설문지의 구성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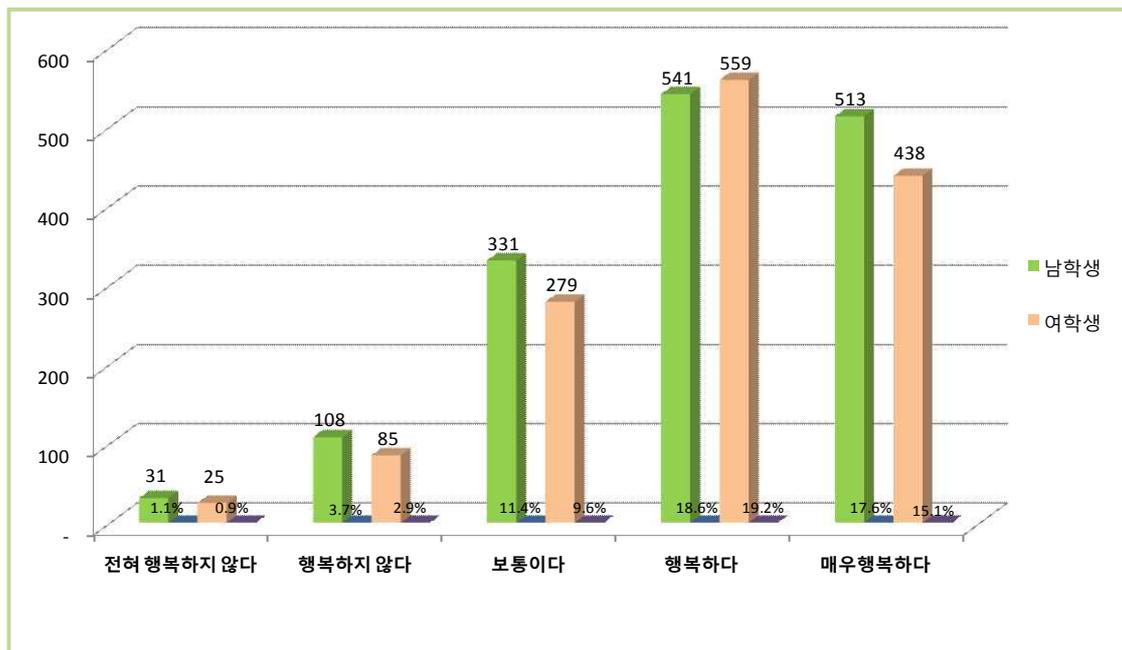
구 분	세부내용
일반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성별, 부모의 연령
일반적 행복감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행복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중 가장 불행할 때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행복을 느끼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
건강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
부모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필요한 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느끼는 안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들과 자주 하는 것
생활환경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의 충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를 걸어 다닐 때 느끼는 안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힘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에서 자주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나 집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행복만족도 결과

■ 일반적 행복감에 대한 인식

1. 현재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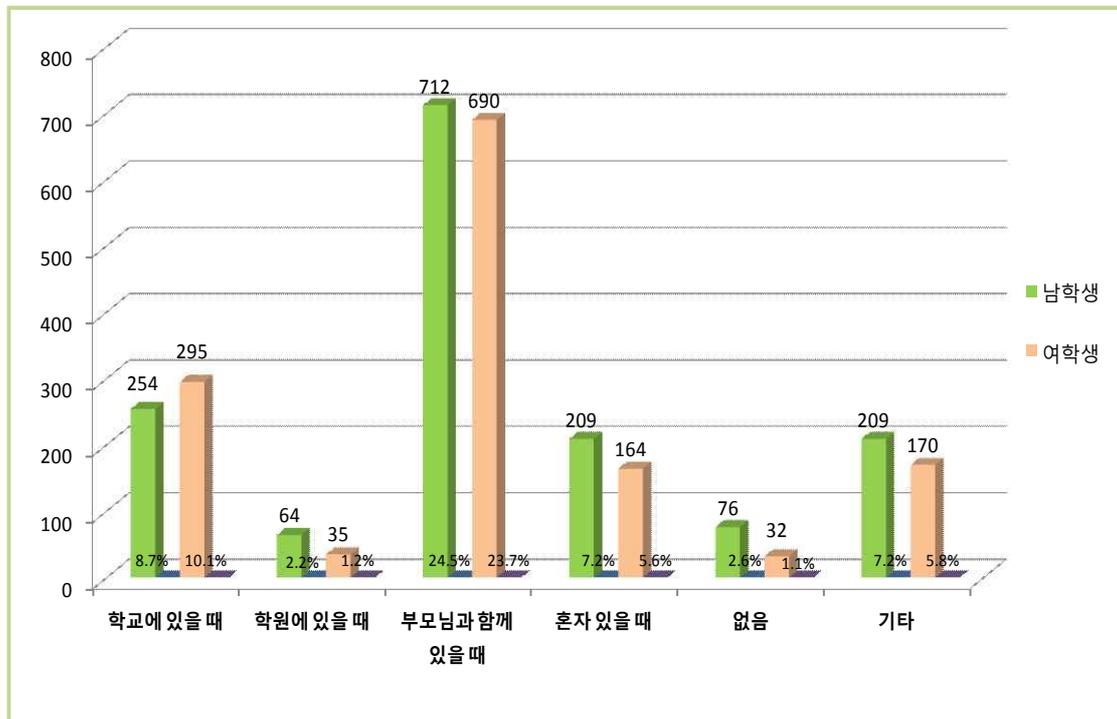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전혀 행복하지 않다	31(1.1)	25(0.9)	56(1.9)
행복하지 않다	108(3.7)	85(2.9)	193(6.6)
보통이다	331(11.4)	279(9.6)	610(21.0)
행복하다	541(18.6)	559(19.2)	1,100(37.8)
매우 행복하다	513(17.6)	438(15.1)	951(32.7)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아동의 성별에 따라 ‘현재 행복 수준’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행복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매우 행복하다’, ‘보통이다’, ‘행복하지 않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아동들은 보통이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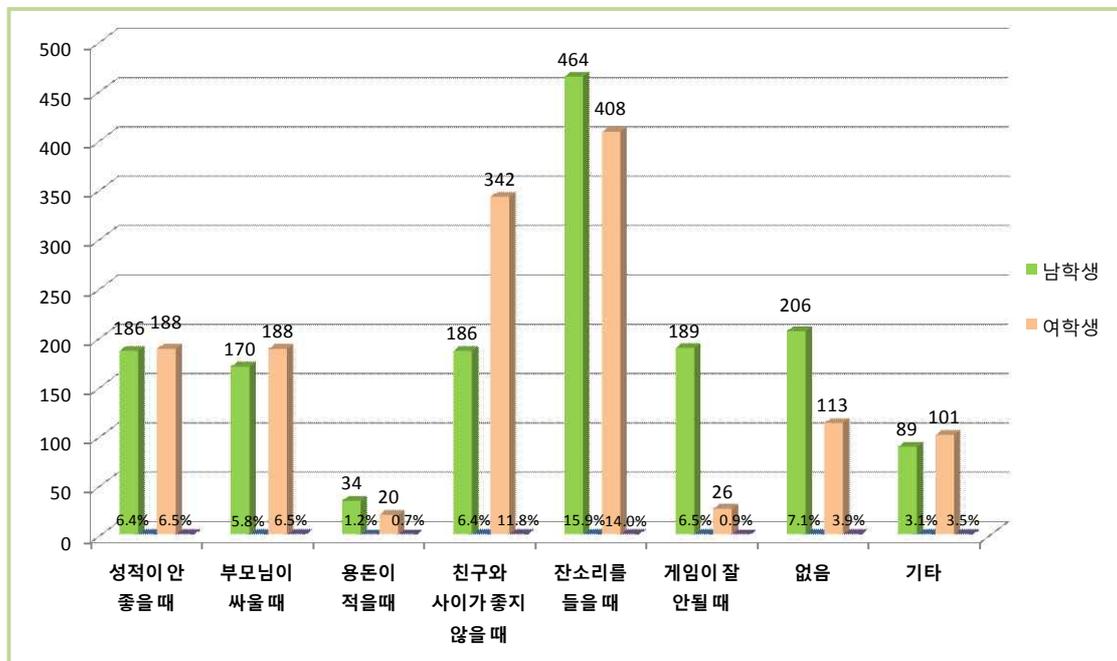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학교에 있을 때	254(8.7)	295(10.1)	549(18.9)
학원에 있을 때	64(2.2)	35(1.2)	99(3.4)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712(24.5)	690(23.7)	1,402(48.2)
혼자 있을 때	209(7.2)	164(5.6)	373(12.8)
없음	76(2.6)	32(1.1)	108(3.7)
기타	209(7.2)	170(5.8)	379(13.0)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를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학교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하루 중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행복할 때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과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3. 하루 중 가장 불행할 때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성적이 안 좋을 때	186(6.4)	188(6.5)	374(12.9)
부모님이 싸울 때	170(5.8)	188(6.5)	358(12.3)
용돈이 적을 때	34(1.2)	20(0.7)	54(1.9)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186(6.4)	342(11.8)	528(18.1)
잔소리를 들을 때	464(15.9)	408(14.0)	872(30.0)
게임이 잘 안될 때	189(6.5)	26(0.9)	215(7.4)
없음	206(7.1)	113(3.9)	319(11.0)
기타	89(3.1)	101(3.5)	190(6.5)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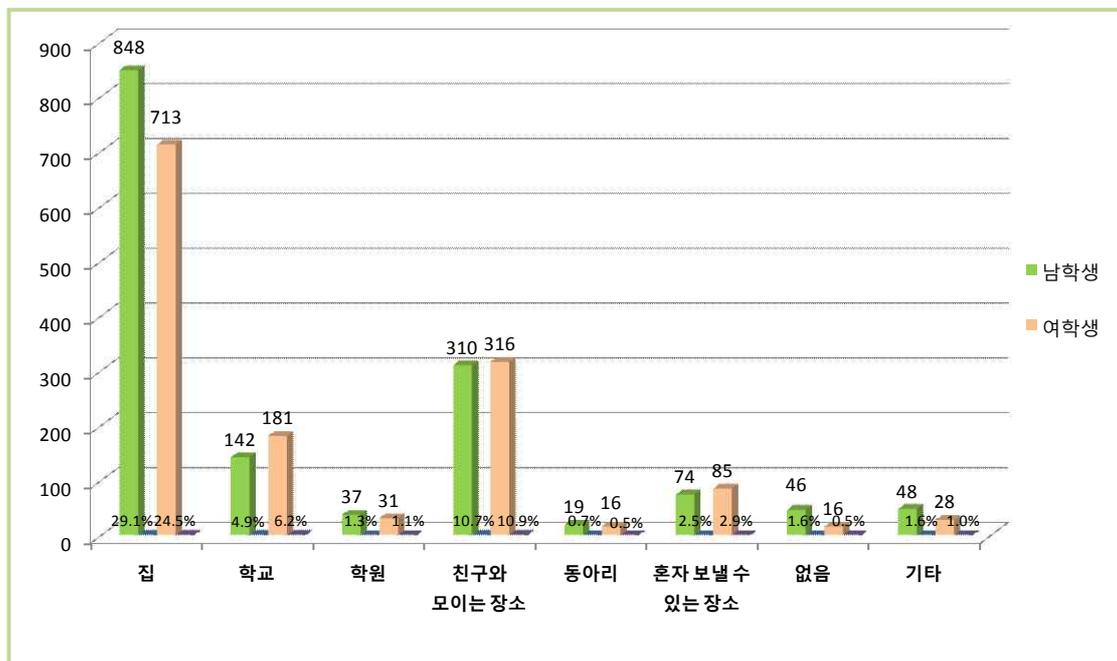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잔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잔소리를 들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과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게임이 잘 안될 때’, ‘성적이 안 좋을 때’·‘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부모님과 싸울 때’, ‘용돈이 적을 때’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성적이 안 좋을 때’·‘부모님과 싸울 때’, ‘게임이 잘 안될 때’, ‘용돈이 적을 때’ 순으로 응답하였다.

■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인식

1. 평소 행복을 느끼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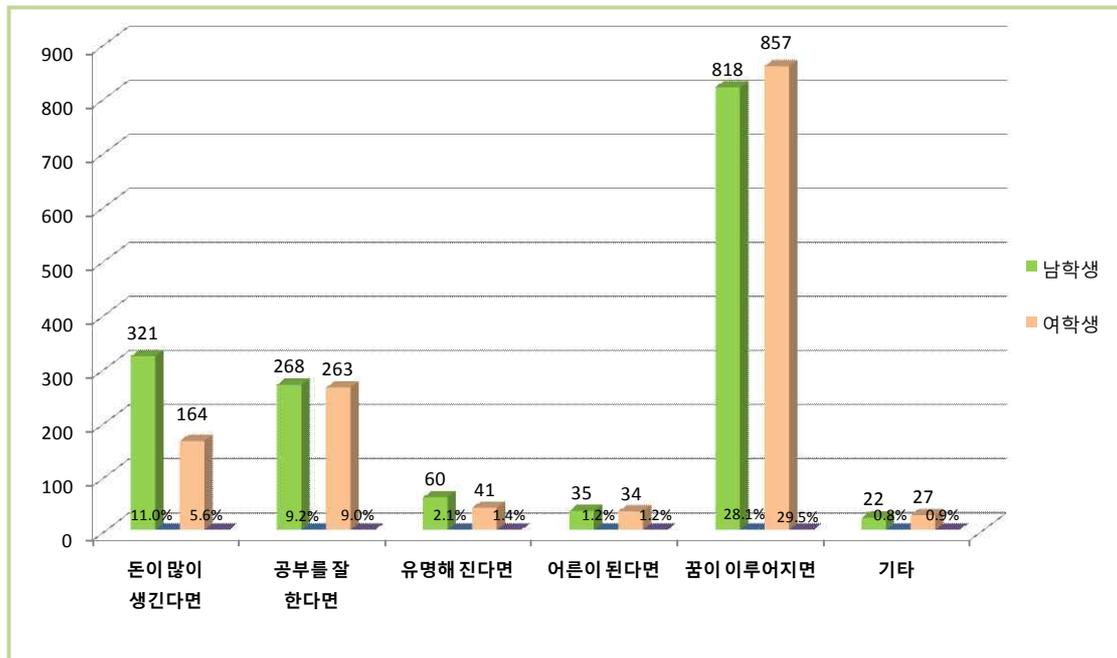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집	848(29.1)	713(24.5)	1,561(53.6)
학교	142(4.9)	181(6.2)	323(11.1)
학원	37(1.3)	31(1.1)	68(2.3)
친구와 모이는 장소	310(10.7)	316(10.9)	626(21.5)
동아리	19(0.7)	16(0.5)	35(1.2)
혼자 보낼 수 있는 장소	74(2.5)	85(2.9)	159(5.5)
없음	46(1.6)	16(0.5)	62(2.1)
기타	48(1.6)	28(1.0)	76(2.6)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아동의 성별에 따라 '평소 행복을 느끼는 장소'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평소 행복감을 느끼는 장소를 '집'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친구와 모이는 장소', '학교', '혼자 보낼 수 있는 장소', '학원', '동아리'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평소 행복감을 느끼는 장소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평소 행복을 느끼는 장소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과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2. 행복의 조건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돈이 많이 생긴다면	321(11.0)	164(5.6)	485(16.7)
공부를 잘 한다면	268(9.2)	263(9.0)	531(18.2)
유명해 진다면	60(2.1)	41(1.4)	101(3.5)
어른이 된다면	35(1.2)	34(1.2)	69(2.4)
꿈이 이루어지면	818(28.1)	857(29.5)	1,675(57.6)
기타	22(0.8)	27(0.9)	49(1.7)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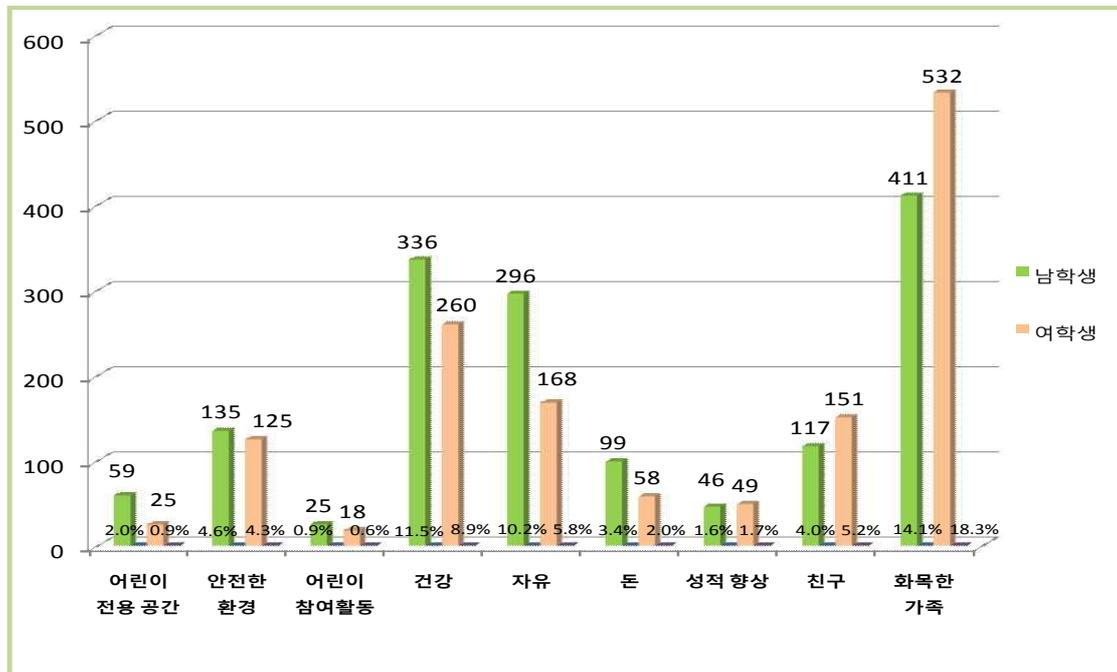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행복의 조건’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행복의 조건으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의 조건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행복의 조건은 ‘돈이 많이 생긴다면’, ‘공부를 잘 한다면’, ‘유명해 진다면’, ‘어른이 된다면’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공부를 잘 한다면’, ‘돈이 많이 생긴다면’, ‘유명해 진다면’, ‘어른이 된다면’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어린이 전용 공간	59(2.0)	25(0.9)	84(2.9)
안전한 환경	135(4.6)	125(4.3)	260(8.9)
어린이 참여활동	25(0.9)	18(0.6)	43(1.5)
건강	336(11.5)	260(8.9)	596(20.5)
자유	296(10.2)	168(5.8)	464(15.9)
돈	99(3.4)	58(2.0)	157(5.4)
성적 향상	46(1.6)	49(1.7)	95(3.3)
친구	117(4.0)	151(5.2)	268(9.2)
화목한 가족	411(14.1)	532(18.3)	943(32.4)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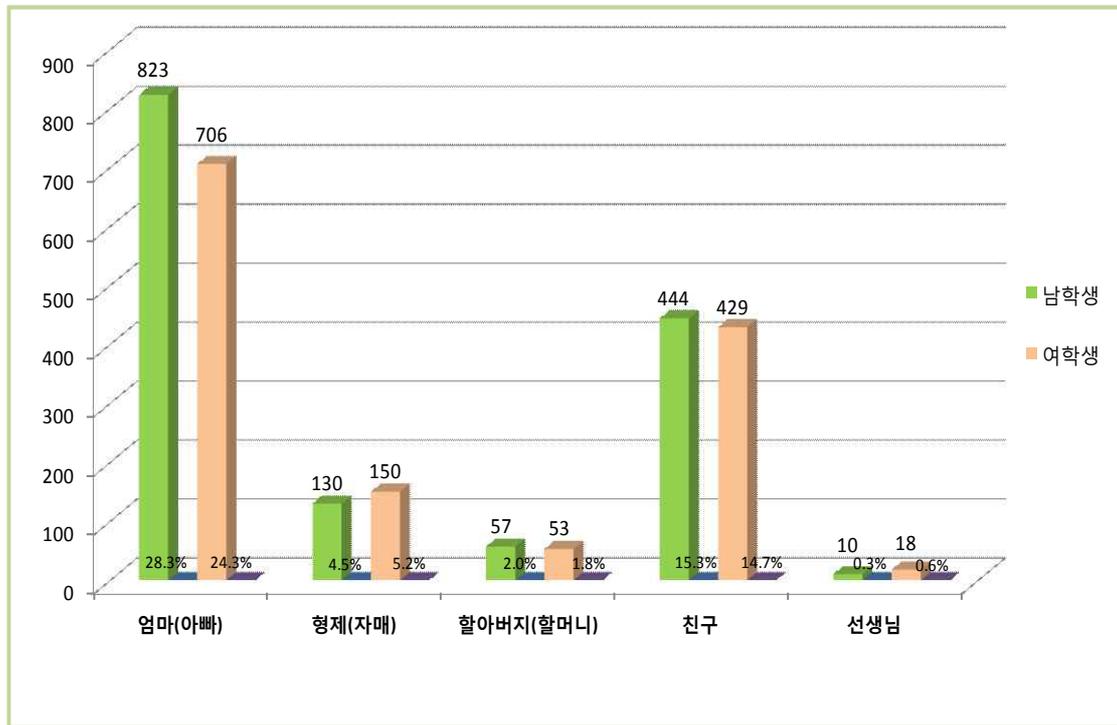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한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한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해 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건강', '자유', '안전한 환경', '친구', '돈', '어린이 전용공간', '성적 향상', '어린이 참여활동'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건강', '자유', '친구', '안전한 환경', '돈', '어린이 전용 공간', '어린이 참여 활동'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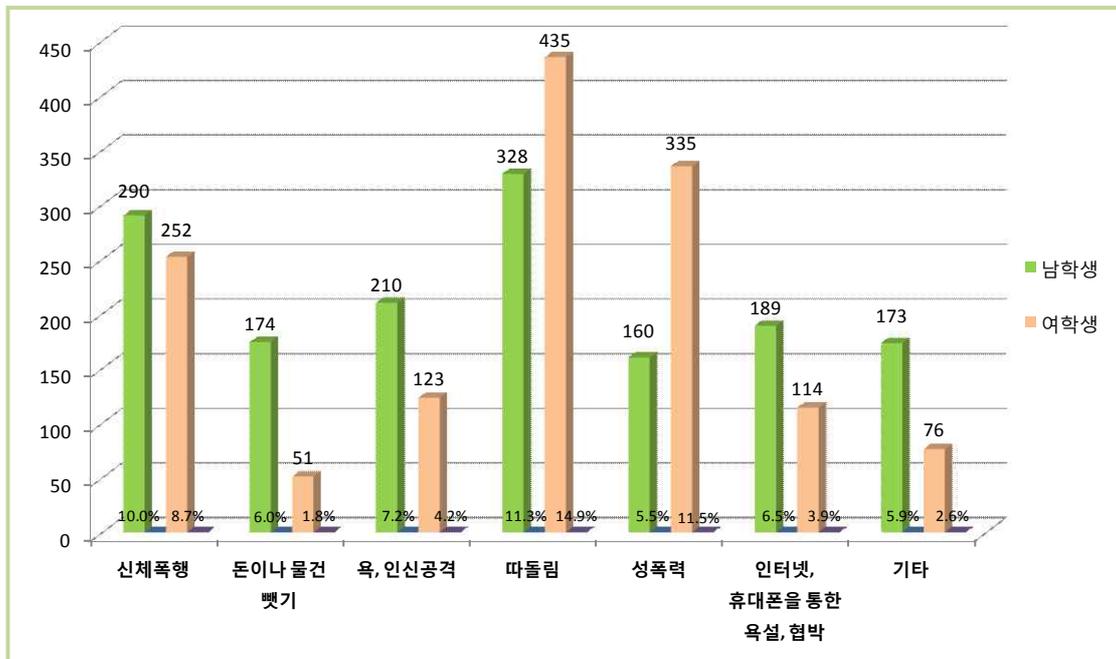
구 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엄마(아빠)	823(28.3)	706(24.3)	1,529(52.5)
형제(자매)	130(4.5)	150(5.2)	280(9.6)
할아버지(할머니)	57(2.0)	53(1.8)	110(3.8)
친구	444(15.3)	429(14.7)	873(30.0)
선생님	10(0.3)	18(0.6)	28(1.0)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은 ‘엄마(아빠)’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친구’, ‘형제(자매)’, ‘할아버지(할머니)’, ‘선생님’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은 ‘엄마(아빠)’인 것을 알 수 있다.

5.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신체폭행	290(10.0)	252(8.7)	542(18.6)
돈이나 물건 빼기	174(6.0)	51(1.8)	225(7.7)
욕, 인신공격	210(7.2)	123(4.2)	333(11.4)
따돌림	328(11.3)	435(14.9)	763(26.2)
성폭력	160(5.5)	335(11.5)	495(17.0)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욕설, 협박	189(6.5)	114(3.9)	303(10.4)
기타	173(5.9)	76(2.6)	249(8.6)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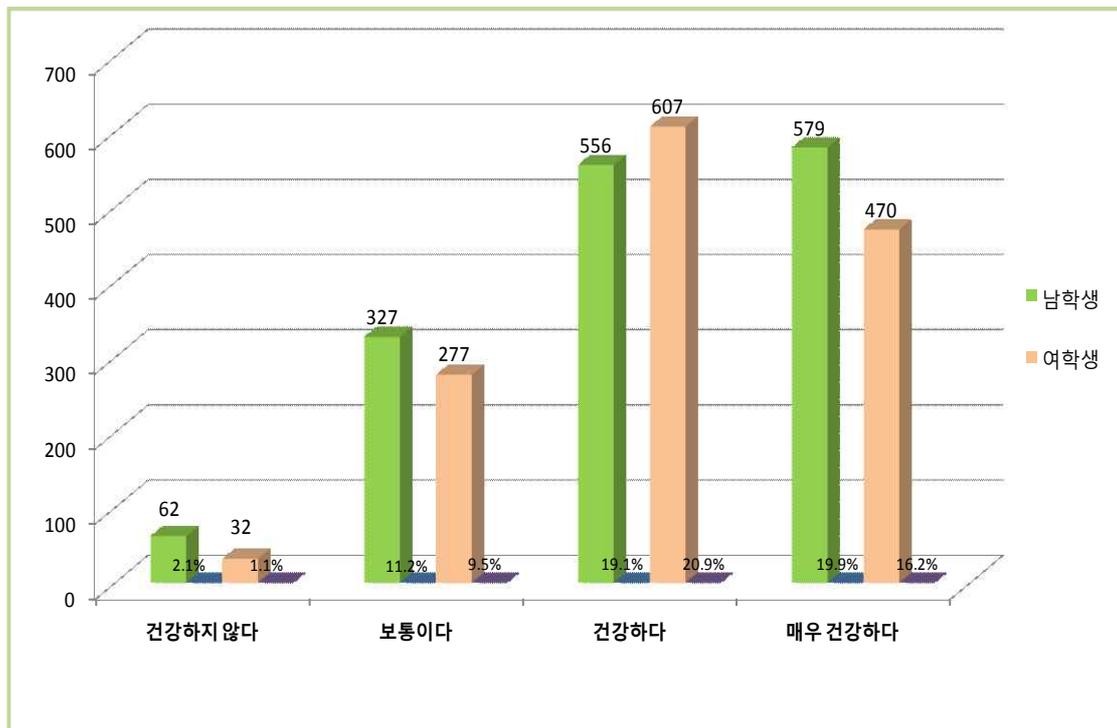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가장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따돌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따돌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신체폭행’, ‘욕, 인신공격’,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욕설, 협박’, ‘돈이나 물 것 빼기’, ‘성폭력’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성폭력’, ‘신체폭행’, ‘욕, 인신공격’,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욕설, 협박’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건강 및 안전

1. 건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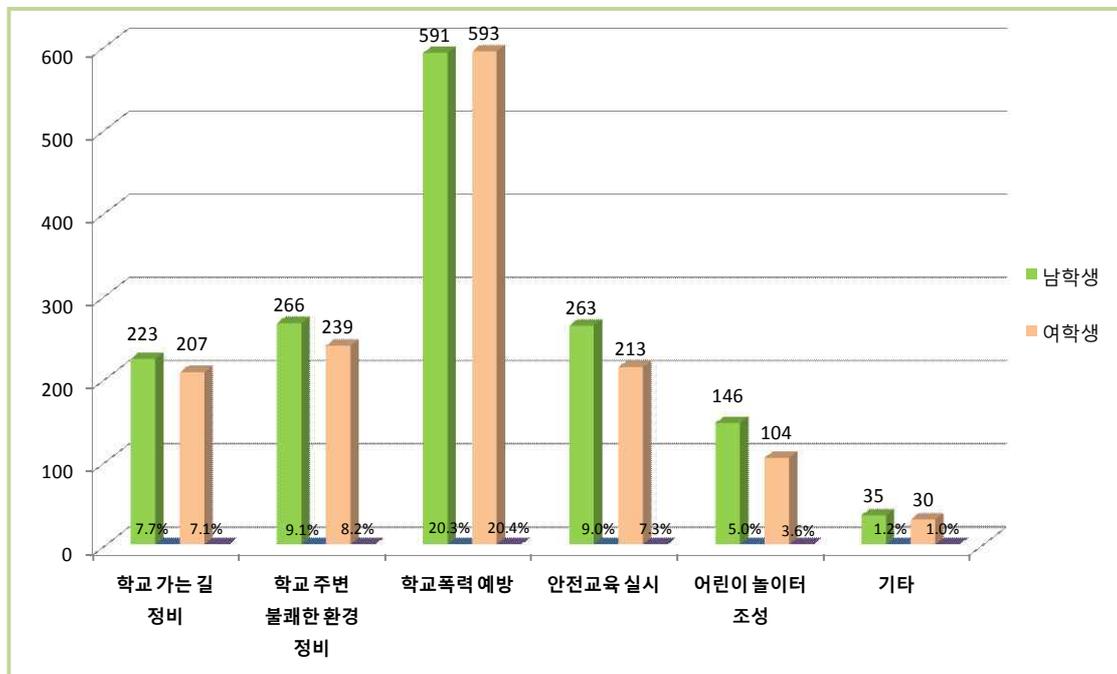
구 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 체(명,%)
건강하지 않다	62(2.1)	32(1.1)	94(3.2)
보통이다	327(11.2)	277(9.5)	604(20.8)
건강하다	556(19.1)	607(20.9)	1,163(40.0)
매우 건강하다	579(19.9)	470(16.2)	1,049(36.0)
전 체	1,524(52.4)	1,386(47.6)	2,910(100.0)



아동의 성별에 따라 ‘건강 상태’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한 편’,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학교 가는 길 정비	223(7.7)	207(7.1)	430(14.8)
학교 주변 불쾌한 환경 정비	266(9.1)	239(8.2)	505(17.4)
학교폭력 예방	591(20.3)	593(20.4)	1,184(40.7)
안전교육 실시	263(9.0)	213(7.3)	476(16.4)
어린이 놀이터 조성	146(5.0)	104(3.6)	250(8.6)
기타	35(1.2)	30(1.0)	65(2.2)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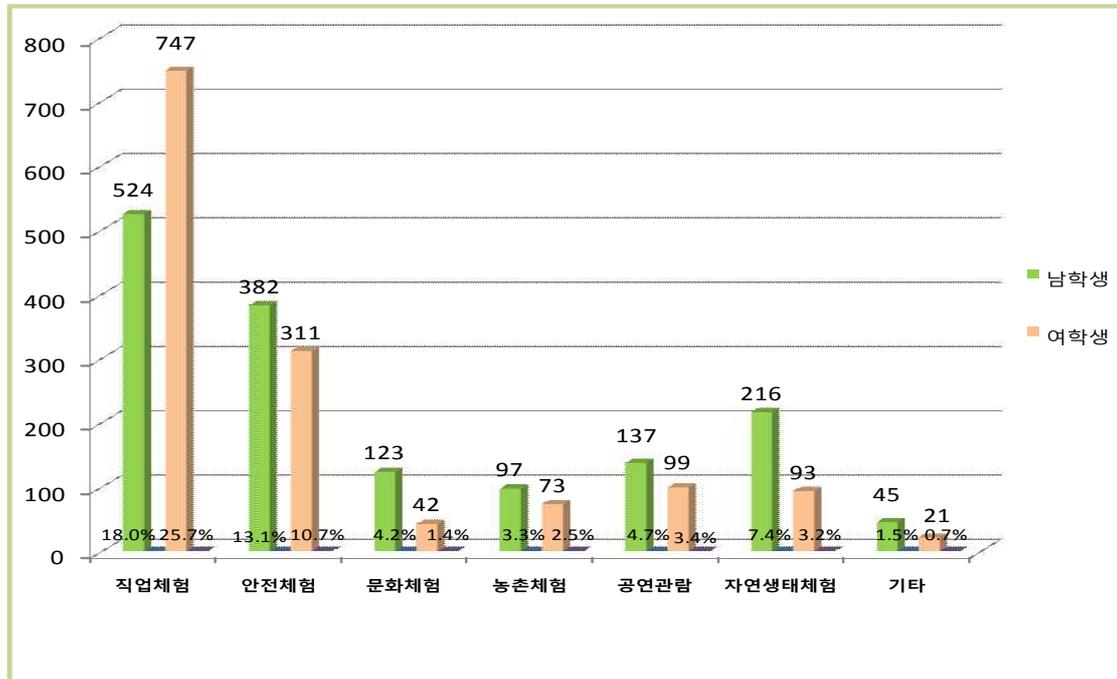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학교 주변 불쾌한 환경 정비', '안전교육 실시', '학교 가는 길 정비', '어린이 놀이터 조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 부모와의 관계

1.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직업체험	524(18.0)	747(25.7)	1,271(43.7)
안전체험	382(13.1)	311(10.7)	693(23.8)
문화체험	123(4.2)	42(1.4)	165(5.7)
농촌체험	97(3.3)	73(2.5)	170(5.8)
공연관람	137(4.7)	99(3.4)	236(8.1)
자연생태체험	216(7.4)	93(3.2)	309(10.6)
기타	45(1.5)	21(0.7)	66(2.3)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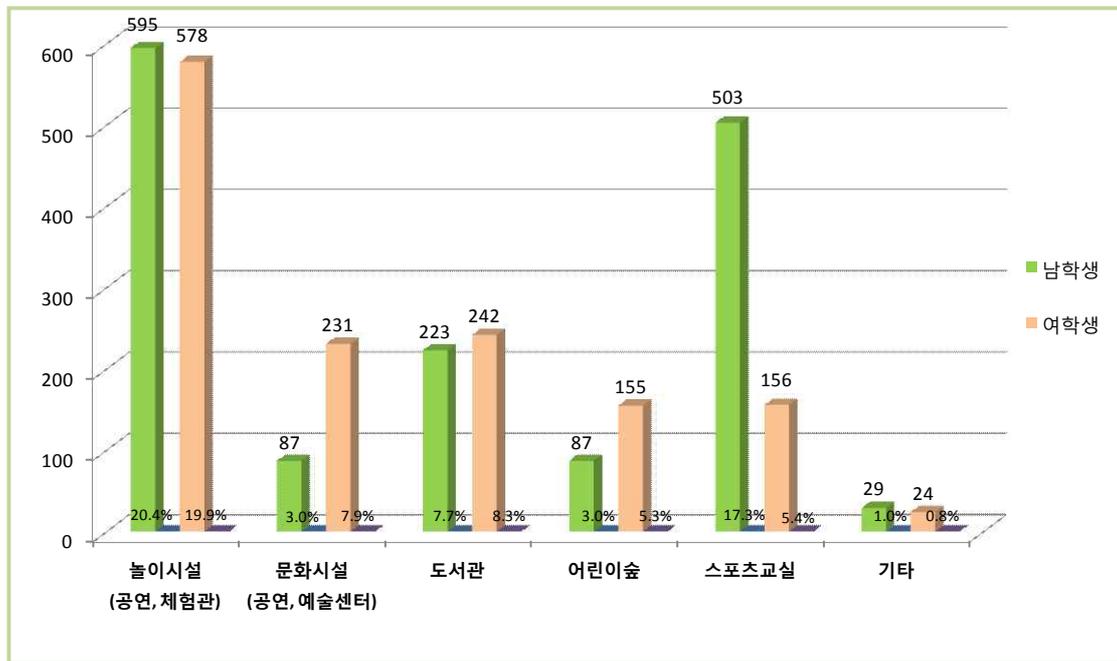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은 ‘직업체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은 직업체험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응답한 아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안전체험’, ‘자연생태체험’, ‘공연관람’, ‘문화체험’, ‘농촌체험’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안전체험’, ‘공연관람’, ‘자연생태체험’, ‘농촌체험’, ‘문화체험’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 가장 필요한 이용 시설

구 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놀이시설(공원, 체험관)	595(20.4)	578(19.9)	1,173(40.3)
문화시설(공연, 예술센터)	87(3.0)	231(7.9)	318(10.9)
도서관	223(7.7)	242(8.3)	465(16.0)
어린이숲	87(3.0)	155(5.3)	242(8.3)
스포츠교실	503(17.3)	156(5.4)	659(22.6)
기타	29(1.0)	24(0.8)	53(1.8)
전 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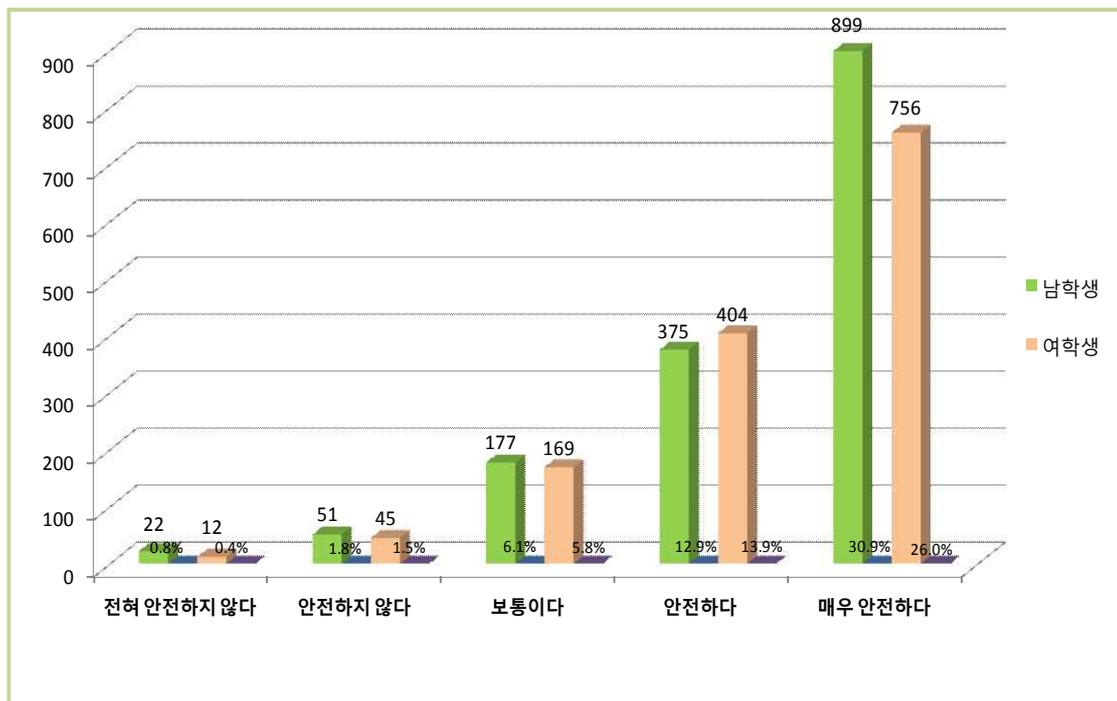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가장 필요한 이용 시설’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놀이시설(공원, 체험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필요한 이용 시설은 놀이 시설(공원, 체험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응답한 아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필요한 이용 시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교실’, ‘도서관’, ‘문화시설(공연, 예술센터)’·‘어린이숲’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도서관’, ‘문화시설(공연, 예술센터)’, ‘스포츠교실’, ‘어린이숲’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집에서 느끼는 안전 정도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전혀 안전하지 않다	22(0.8)	12(0.4)	34(1.2)
안전하지 않다	51(1.8)	45(1.5)	96(3.3)
보통이다	177(6.1)	169(5.8)	346(11.9)
안전하다	375(12.9)	404(13.9)	779(26.8)
매우 안전하다	899(30.9)	756(26.0)	1,655(56.9)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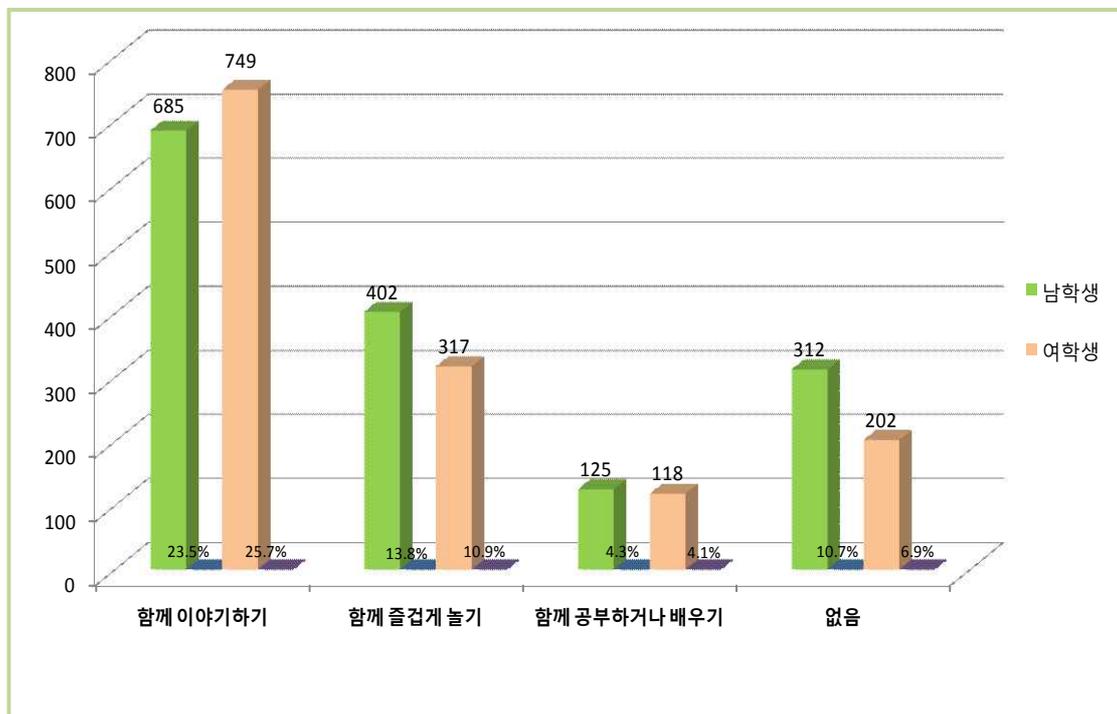
* $p < .05$.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집에서 느끼는 안전 정도'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집에서 느끼는 안전 정도는 '매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집에서 느끼는 안전 정도는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가족들과 자주 하는 것

구 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 체(명,%)
함께 이야기하기	685(23.5)	749(25.7)	1,434(49.3)
함께 즐겁게 놀기	402(13.8)	317(10.9)	719(24.7)
함께 공부하거나 배우기	125(4.3)	118(4.1)	243(8.4)
없음	312(10.7)	202(6.9)	514(17.7)
전 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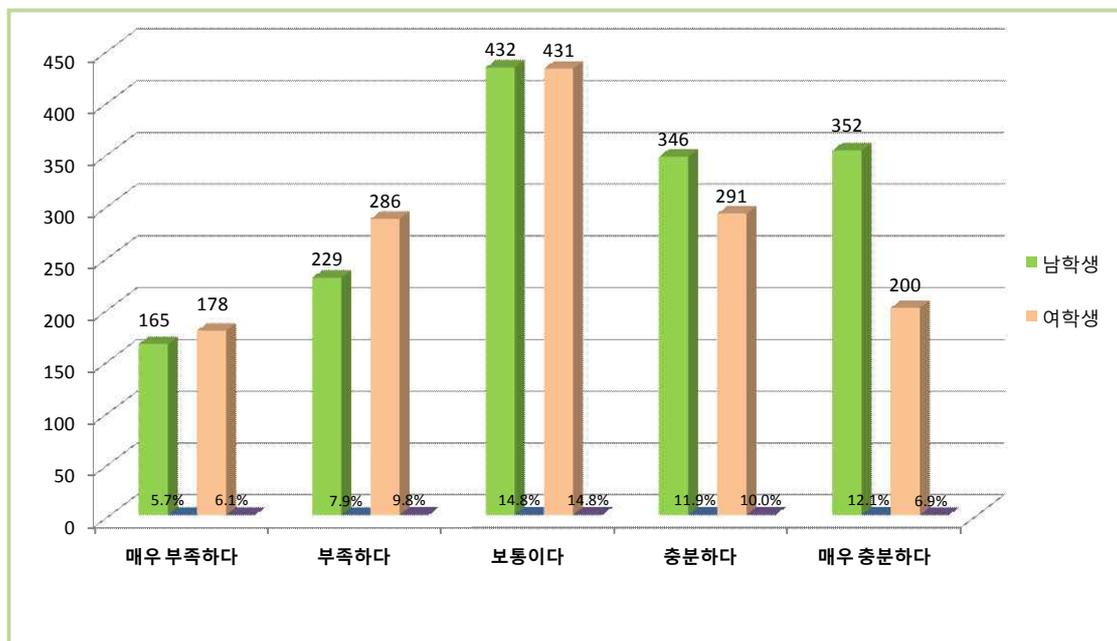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가족들과 자주 하는 것’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족과 자주 하는 것은 ‘함께 이야기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함께 즐겁게 놀기’, ‘함께 공부하거나 배우기’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집에서 가족들과 자주 하는 것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없다고 응답한 아동도 있었다.

■ 생활환경 만족도

1.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의 충분성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매우 부족하다	165(5.7)	178(6.1)	343(11.8)
부족하다	229(7.9)	286(9.8)	515(17.7)
보통이다	432(14.8)	431(14.8)	863(29.7)
충분하다	346(11.9)	291(10.0)	637(21.9)
매우 충분하다	352(12.1)	200(6.9)	552(19.0)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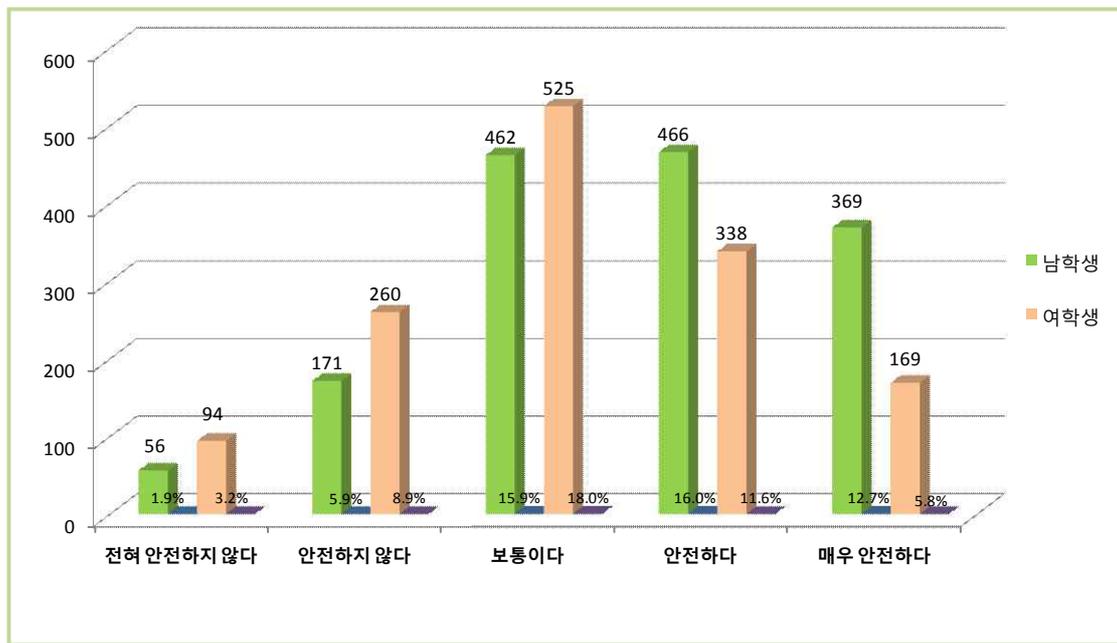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의 충분성’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네에서 즐겁게 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의 충분성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동네에서 즐겁게 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의 충분성은 보통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의 충분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충분하다’, ‘부족하다’, ‘매우 충분하다’, ‘매우 부족하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 동네를 걸어 다닐 때 느끼는 안전 정도

구 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전혀 안전하지 않다	56(1.9)	94(3.2)	150(5.2)
안전하지 않다	171(5.9)	260(8.9)	431(14.8)
보통이다	462(15.9)	525(18.0)	987(33.9)
안전하다	466(16.0)	338(11.6)	804(27.6)
매우 안전하다	369(12.7)	169(5.8)	538(18.5)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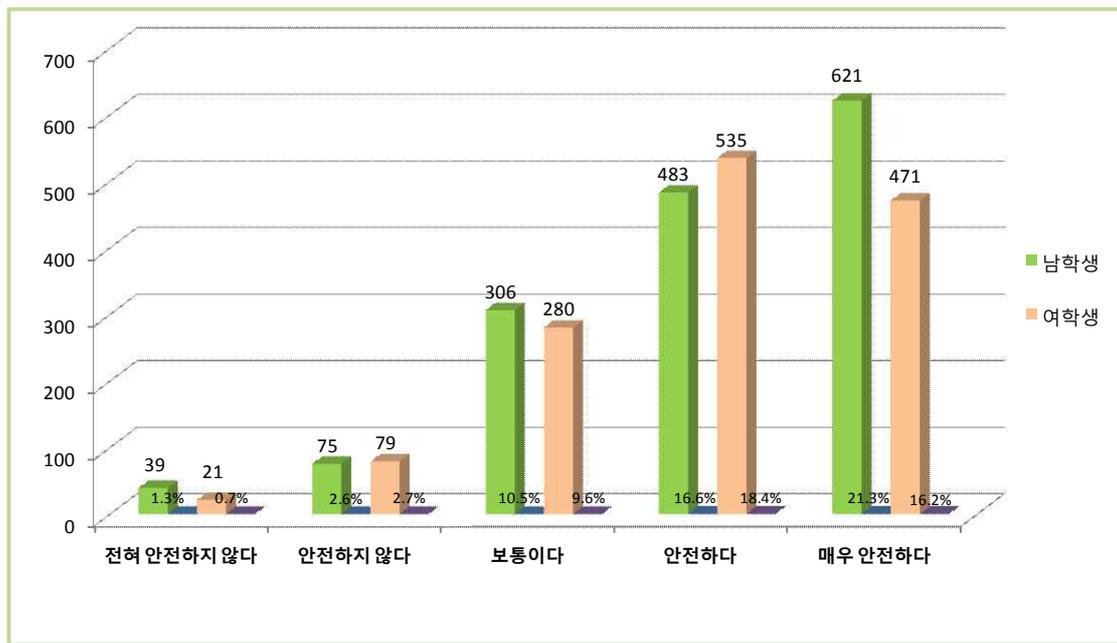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동네를 걸어 다닐 때 느끼는 안전 정도’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네를 걸어 다닐 때 느끼는 안전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보통이다’,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매우 안전하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학교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전 정도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전혀 안전하지 않다	39(1.3)	21(0.7)	60(2.1)
안전하지 않다	75(2.6)	79(2.7)	154(5.3)
보통이다	306(10.5)	280(9.6)	586(20.1)
안전하다	483(16.6)	535(18.4)	1,018(35.0)
매우 안전하다	621(21.3)	471(16.2)	1,092(37.5)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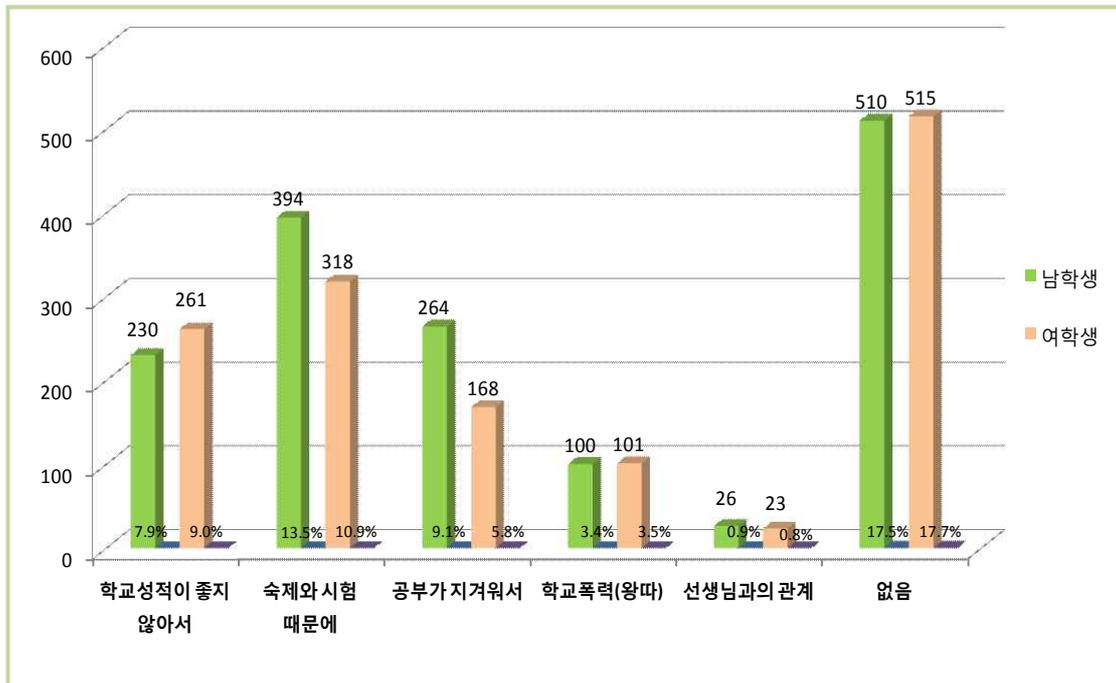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전 정도’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에 있을 때 안전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전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매우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매우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 학교에서 힘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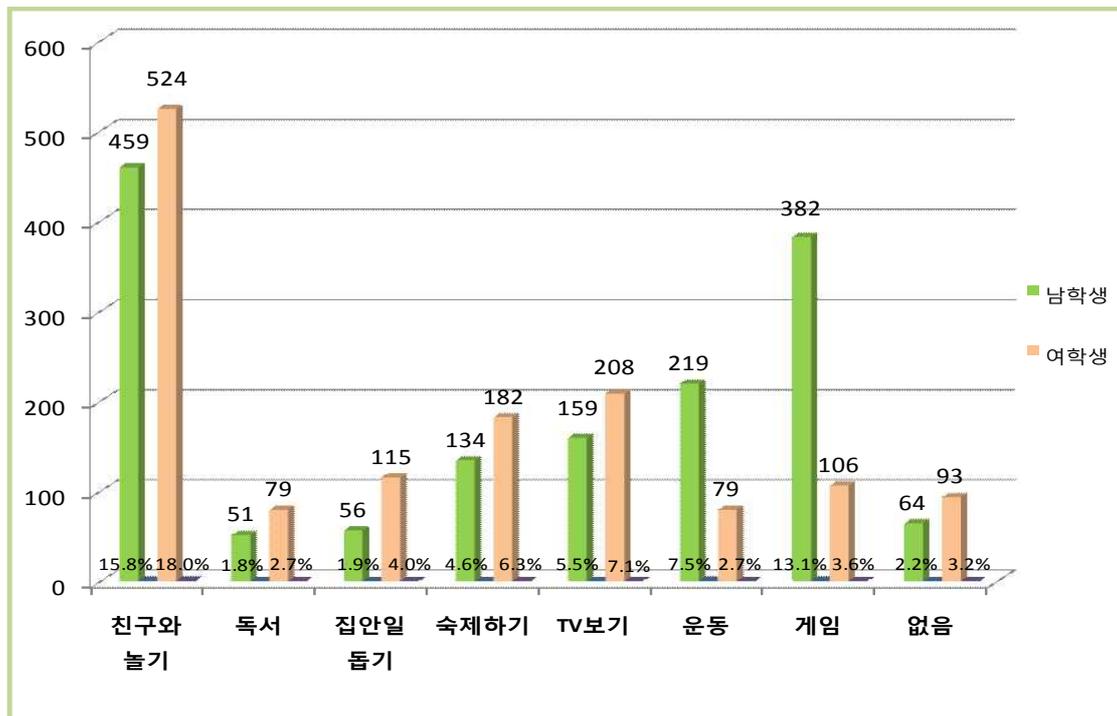
구 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230(7.9)	261(9.0)	491(16.9)
숙제와 시험 때문에	394(13.5)	318(10.9)	712(24.5)
공부가 지겨워서	264(9.1)	168(5.8)	432(14.8)
학교폭력(왕따)	100(3.4)	101(3.5)	201(6.9)
선생님과의 관계	26(0.9)	23(0.8)	49(1.7)
없음	510(17.5)	515(17.7)	1,025(35.2)
전 체	1,524(52.4)	1,386(47.6)	2,910(100.0)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에서 힘든 점’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없다’라고 인식한 아동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숙제와 시험 때문에’,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공부가 지겨워서’, ‘학교폭력(왕따)’, ‘선생님과의 관계’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힘든 점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없다고 응답한 아동도 있었다.

5. 학교 밖에서 자주 하는 것

구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친구와 놀기	459(15.8)	524(18.0)	983(33.8)
독서	51(1.8)	79(2.7)	130(4.5)
집안일 돕기	56(1.9)	115(4.0)	171(5.9)
숙제하기	134(4.6)	182(6.3)	316(10.9)
TV보기	159(5.5)	208(7.1)	367(12.6)
운동	219(7.5)	79(2.7)	298(10.2)
게임	382(13.1)	106(3.6)	488(16.8)
없음	64(2.2)	93(3.2)	157(5.4)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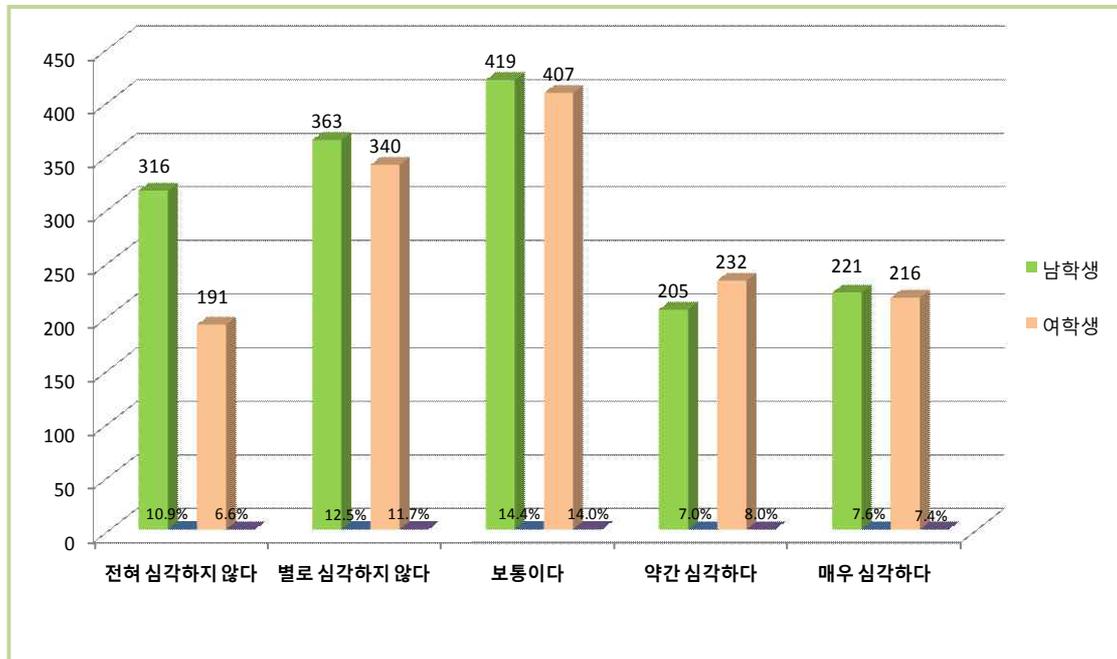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 밖에서 자주 하는 것’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 밖에서 자주 하는 것은 ‘친구와 놀기’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 밖에서 자주 하는 것은 친구와 놀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없다고 응답한 아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에서 자주 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게임’, ‘운동’, ‘TV보기’, ‘숙제하기’, ‘집안일 돕기’, ‘독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TV보기’, ‘숙제하기’, ‘집안일 돕기’, ‘게임’, ‘독서’·‘운동’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 학교나 집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구 분	남학생(명,%)	여학생(명,%)	전체(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316(10.9)	191(6.6)	507(17.4)
별로 심각하지 않다	363(12.5)	340(11.7)	703(24.2)
보통이다	419(14.4)	407(14.0)	826(28.4)
약간 심각하다	205(7.0)	232(8.0)	437(15.0)
매우 심각하다	221(7.6)	216(7.4)	437(15.0)
전체	1,524(52.4)	1,386(47.6)	2,910(100.0)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나 집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나 집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나 집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는 보통으로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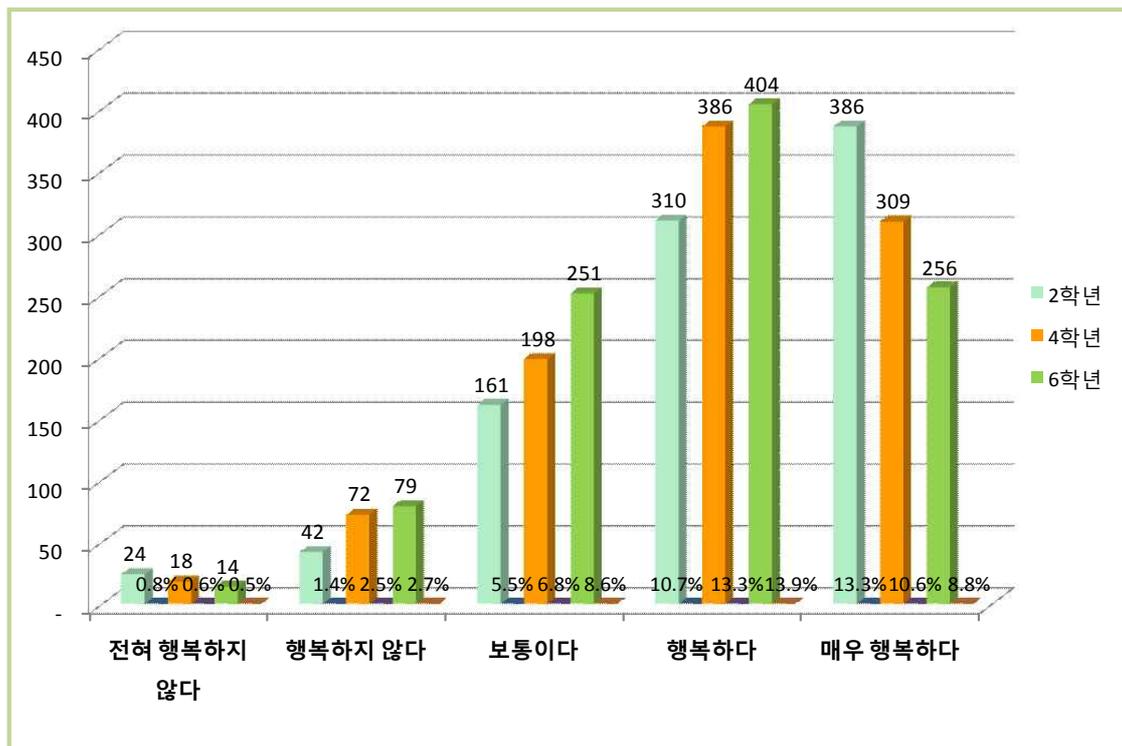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나 집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 아동의 학년에 따른 행복만족도 결과

■ 일반적 행복감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현재 행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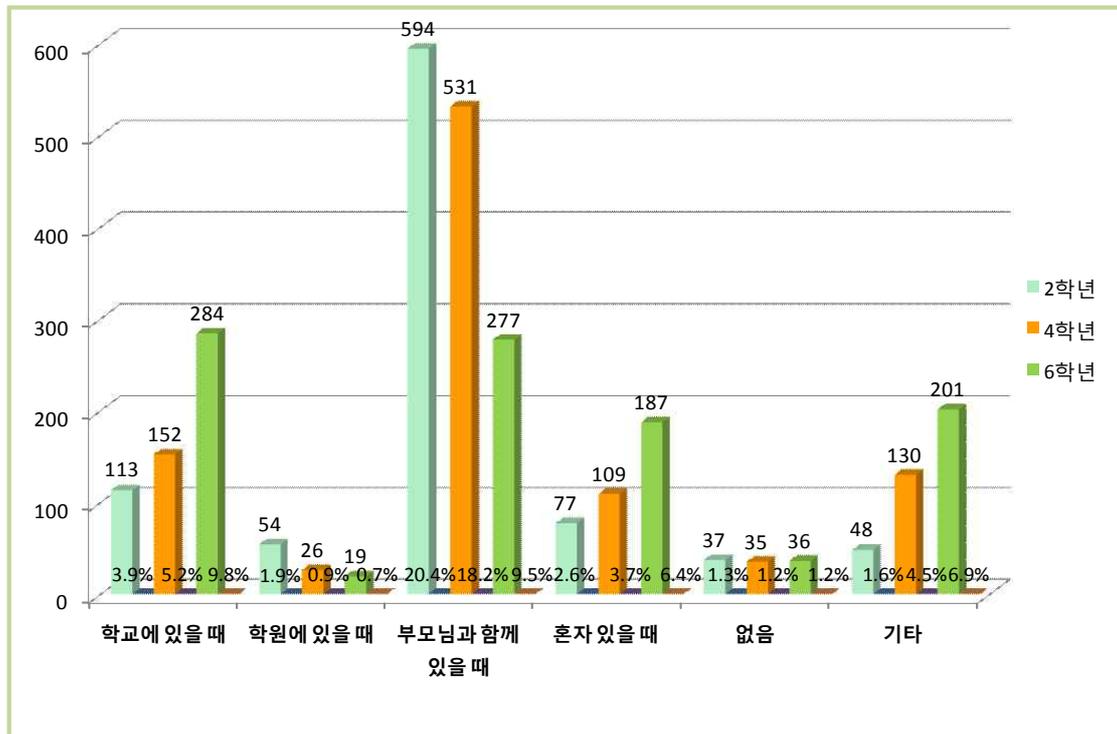
구 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 체(명,%)
전혀 행복하지 않다	24(0.8)	18(0.6)	14(0.5)	56(1.9)
행복하지 않다	42(1.4)	72(2.5)	79(2.7)	193(6.6)
보통이다	161(5.5)	198(6.8)	251(8.6)	610(21)
행복하다	310(10.7)	386(13.3)	404(13.9)	1,100(37.8)
매우 행복하다	386(13.3)	309(10.6)	256(8.8)	951(32.7)
전 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아동의 학년에 따라 '현재 행복 수준'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학생들은 모두 '행복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매우 행복하다', '보통이다', '행복하지 않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

구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체(명,%)
학교에 있을 때	113(3.9)	152(5.2)	284(9.8)	549(18.9)
학원에 있을 때	54(1.9)	26(0.9)	19(0.7)	99(3.4)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594(20.4)	531(18.2)	277(9.5)	1,402(48.2)
혼자 있을 때	77(2.6)	109(3.7)	187(6.4)	373(12.8)
없음	37(4.0)	35(1.2)	36(1.2)	108(3.7)
기타	48(1.6)	130(4.5)	201(6.9)	379(13.0)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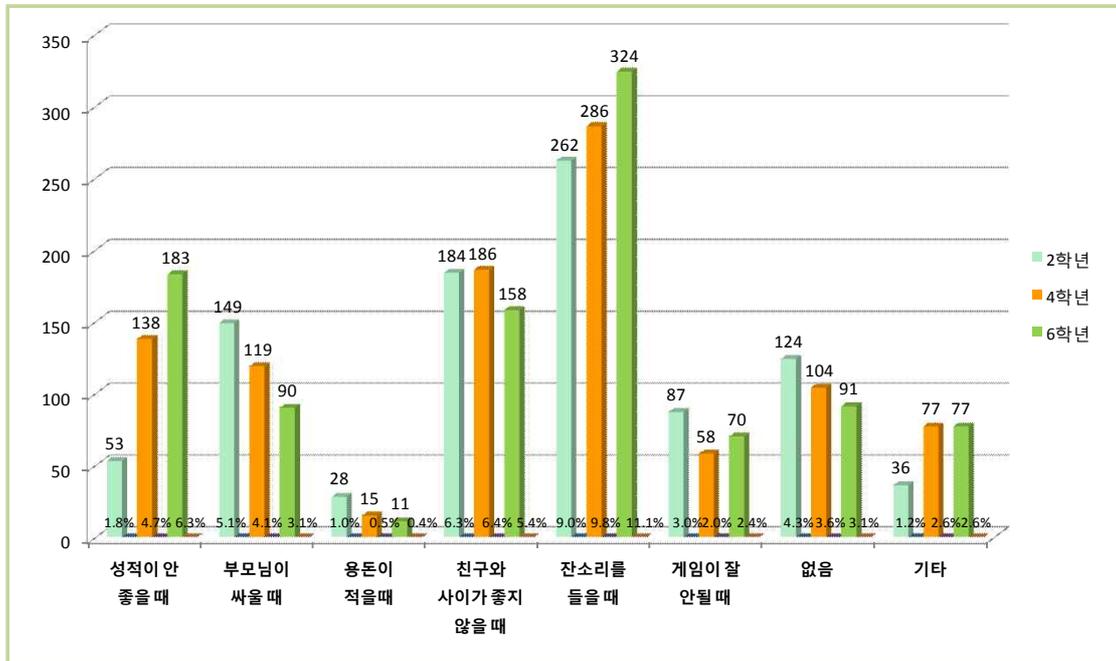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6학년은 ‘학교에 있을 때’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학년과 4학년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와 6학년은 학교에 있을 때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행복할 때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과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루 중 가장 행복할 때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학교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의 경우, ‘학교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의 경우, ‘학교에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학원에 있을 때’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하루 중 가장 불행할 때

구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체(명,%)
성적이 안 좋을 때	53(1.8)	138(4.7)	183(6.3)	374(12.9)
부모님이 싸울 때	149(5.1)	119(4.1)	90(3.1)	358(12.3)
용돈이 적을 때	28(1.0)	15(0.5)	11(0.4)	54(1.9)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184(6.3)	186(6.4)	158(5.4)	528(18.1)
잔소리를 들을 때	262(9.0)	286(9.8)	324(11.1)	872(30.0)
게임이 잘 안될 때	87(3.0)	58(2.0)	70(2.4)	215(7.4)
없음	124(4.3)	104(3.6)	91(3.1)	31(11.0)
기타	36(1.2)	77(2.6)	77(2.6)	190(6.5)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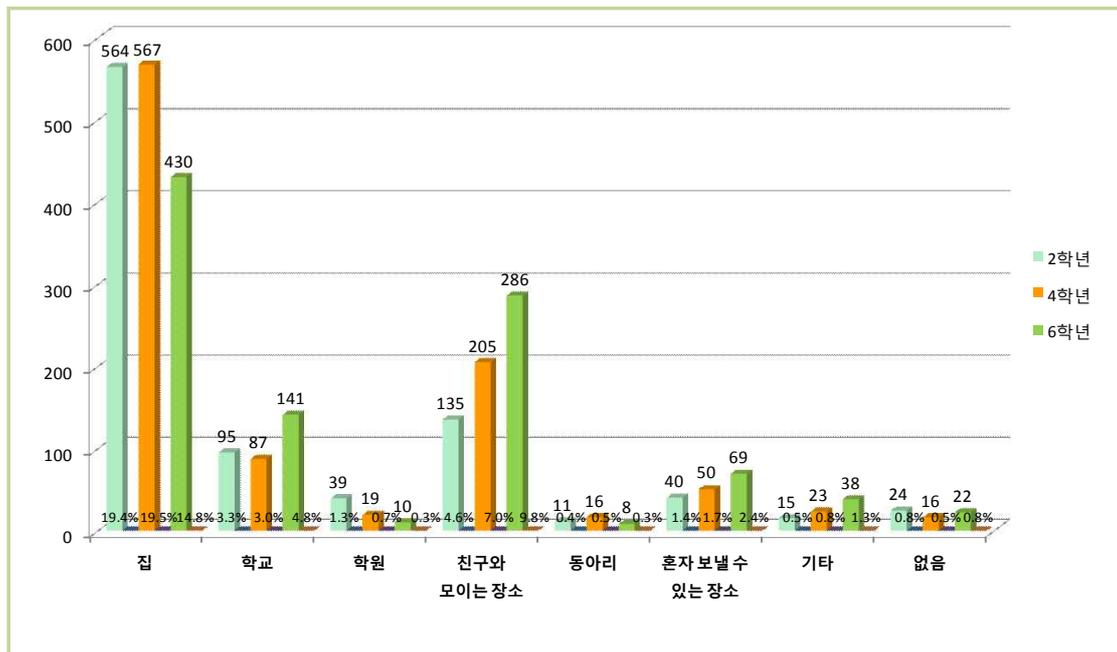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잔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잔소리를 들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과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과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부모님이 싸울 때’, ‘게임이 잘 안될 때’, ‘성적이 안 좋을 때’, ‘용돈이 적을 때’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의 경우,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성적이 안 좋을 때’, ‘부모님이 싸울 때’, ‘게임이 잘 안될 때’, ‘용돈이 적을 때’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의 경우, ‘성적이 안 좋을 때’,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부모님이 싸울 때’, ‘게임이 잘 안될 때’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인식

1. 평소 행복을 느끼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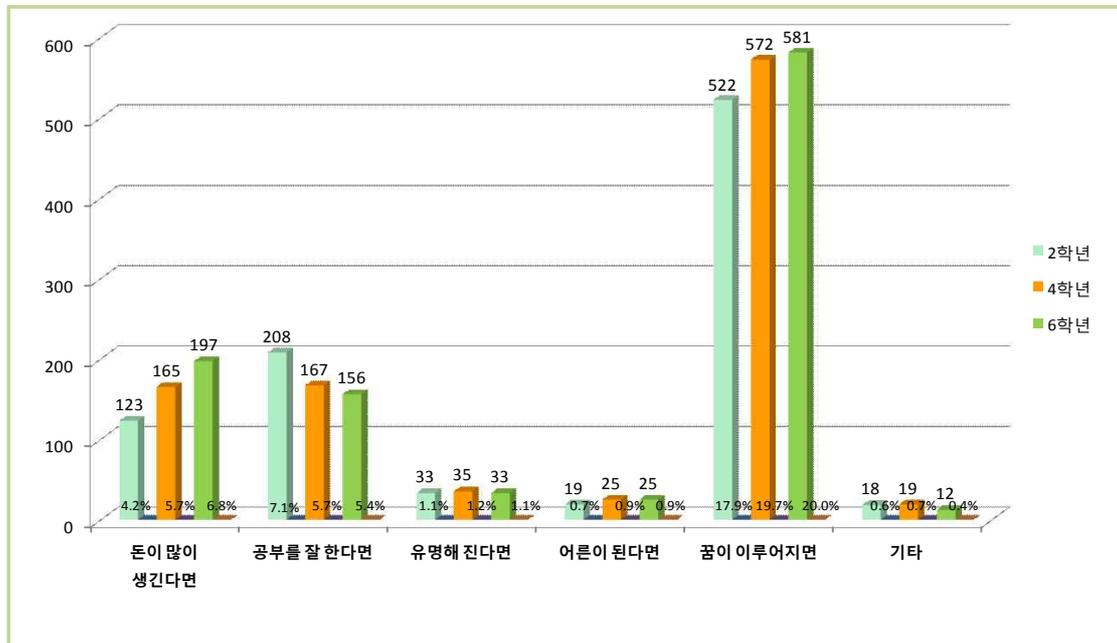
구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체(명,%)
집	564(19.4)	567(19.5)	430(14.8)	1,561(53.6)
학교	95(3.3)	87(3.0)	141(4.8)	323(11.1)
학원	39(1.3)	19(0.7)	10(0.3)	68(2.3)
친구와 모이는 장소	135(4.6)	205(7.0)	286(9.8)	626(21.5)
동아리	11(0.4)	16(0.5)	8(0.3)	35(1.2)
혼자 보낼 수 있는 장소	40(1.4)	50(1.7)	69(2.4)	159(5.5)
기타	15(0.5)	23(0.8)	38(1.3)	76(2.6)
없음	24(0.8)	16(0.5)	22(0.8)	62(2.1)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아동의 학년에 따라 ‘평소 행복을 느끼는 장소’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평소 행복감을 느끼는 장소를 ‘집’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친구와 모이는 장소’, ‘학교’, ‘혼자 보낼 수 있는 장소’, ‘학원’, ‘동아리’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평소 행복감을 느끼는 장소는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평소 행복을 느끼는 장소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과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2. 행복의 조건

구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체(명,%)
돈이 많이 생긴다면	123(4.2)	165(5.7)	197(6.8)	485(16.7)
공부를 잘 한다면	208(7.1)	167(5.7)	156(5.4)	531(18.2)
유명해 진다면	33(1.1)	35(1.2)	33(1.1)	101(3.5)
어른이 된다면	19(0.7)	25(0.9)	25(0.9)	69(2.4)
꿈이 이루어지면	522(17.9)	572(19.7)	581(20.0)	1675(57.6)
기타	18(0.6)	19(0.7)	12(0.4)	49(1.7)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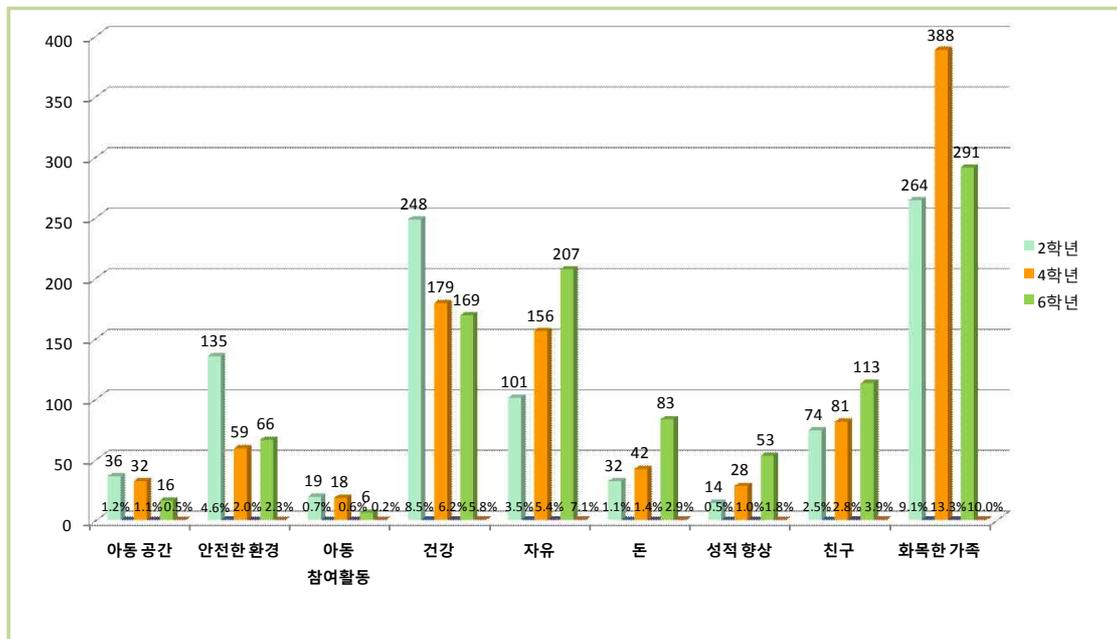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행복의 조건’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행복의 조건으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의 조건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공부를 잘 한다면’, ‘돈이 많이 생긴다면’, ‘유명해 진다면’, ‘어른이 된다면’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의 경우, ‘공부를 잘 한다면’·‘돈이 많이 생긴다면’, ‘유명해 진다면’, ‘어른이 된다면’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의 경우, ‘돈이 많이 생긴다면’, ‘공부를 잘 한다면’, ‘유명해 진다면’, ‘어른이 된다면’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구 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 체(명,%)
아동 공간	36(1.2)	32(1.1)	16(0.5)	84(2.9)
안전한 환경	135(4.6)	59(2.0)	66(2.3)	260(8.9)
아동 참여활동	19(0.7)	18(0.6)	6(0.6)	43(1.5)
건강	248(8.5)	179(6.2)	169(5.8)	596(20.5)
자유	101(3.5)	156(5.4)	207(7.1)	464(15.9)
돈	32(1.1)	42(1.4)	83(2.9)	157(5.4)
성적 향상	14(0.5)	28(1.0)	53(1.8)	95(3.3)
친구	74(2.5)	81(2.8)	113(3.9)	268(9.2)
화목한 가족	264(9.1)	388(13.3)	291(10.0)	943(32.4)
전 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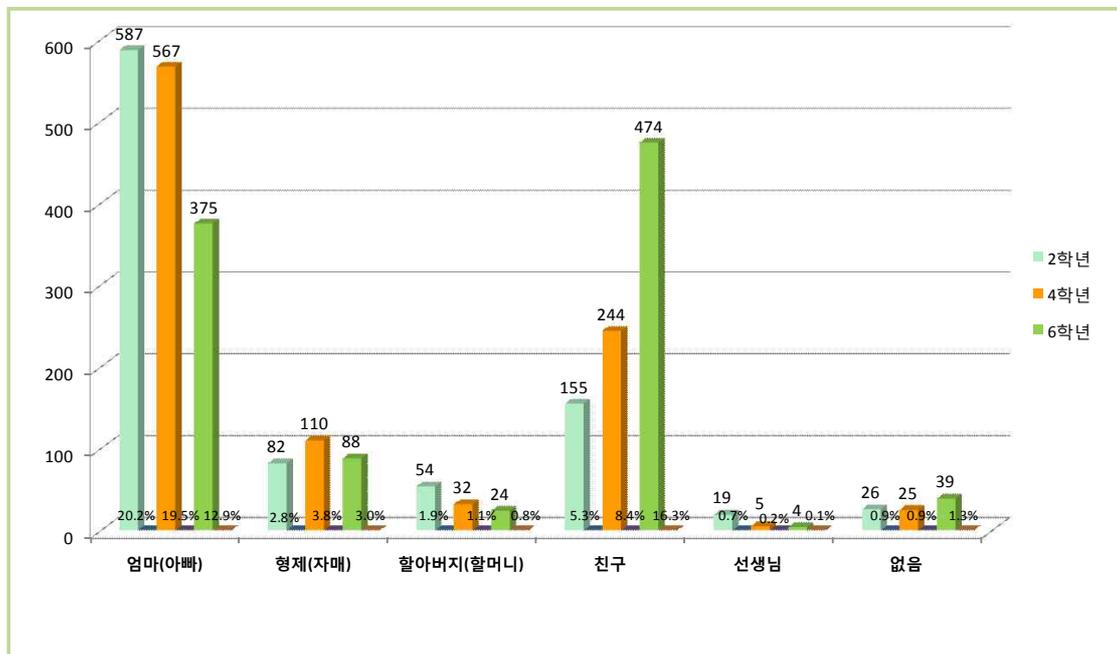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한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한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건강', '안전한 환경', '자유', '친구', '아동 공간', '돈', '성적 향상', '아동 참여활동'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의 경우, '건강', '자유', '친구', '안전한 환경', '돈', '아동 공간', '성적 향상', '아동 참여활동'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의 경우, '자유', '건강', '친구', '돈', '안전한 환경', '성적 향상', '아동 공간', '아동 참여활동'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

구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체(명,%)
엄마(아빠)	587(20.0)	567(19.5)	375(12.9)	1,529(52.5)
형제(자매)	82(2.8)	110(3.8)	88(3.0)	280(9.6)
할아버지(할머니)	54(1.9)	32(1.1)	24(0.8)	110(3.8)
친구	155(5.3)	244(8.4)	474(16.3)	873(30.0)
선생님	19(0.7)	5(0.2)	4(0.1)	28(1.0)
없음	26(0.9)	25(0.9)	39(1.3)	90(3.1)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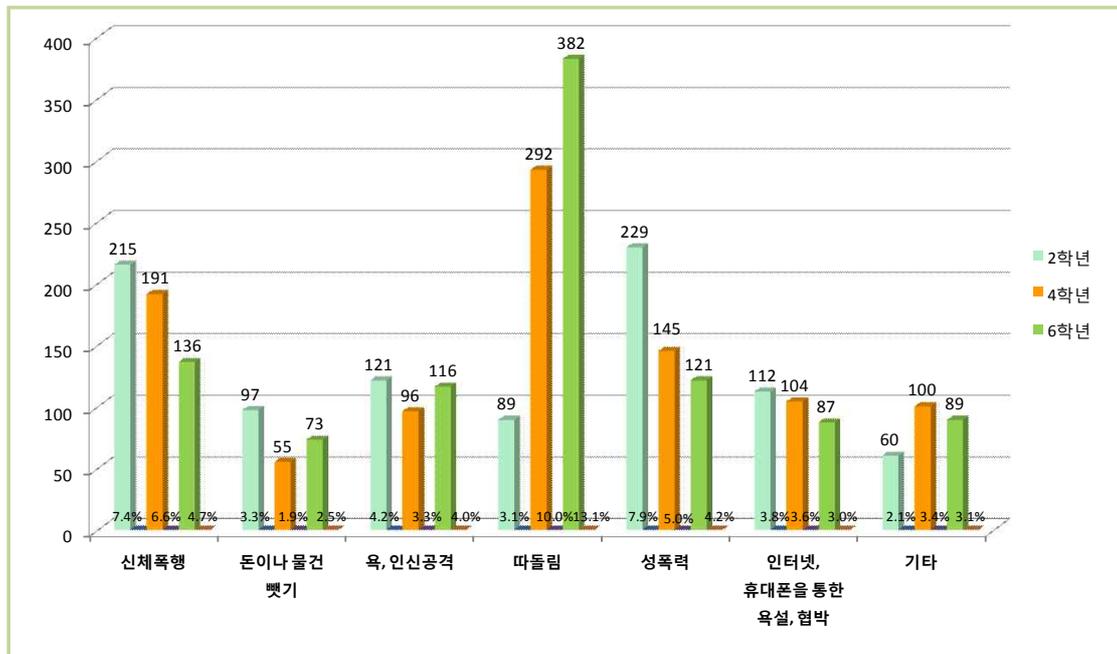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은 ‘엄마(아빠)’, 4학년과 6학년은 ‘친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학년에게는 부모가, 4학년과 6학년에게는 친구가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없다고 응답한 아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친구’, ‘형제(자매)’, ‘할아버지(할머니)’, ‘선생님’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의 경우, ‘형제(자매)’, ‘엄마(아빠)’, ‘할아버지(할머니)’, ‘선생님’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의 경우, ‘엄마(아빠)’, ‘형제(자매)’, ‘선생님’, ‘할아버지(할머니)’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5.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

구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체(명,%)
신체폭행	215(7.4)	191(6.6)	136(4.7)	542(18.6)
돈이나 물건 빼기	97(3.3)	55(1.9)	73(2.5)	225(7.7)
욕, 인신공격	121(4.2)	96(3.3)	116(4.0)	333(11.4)
따돌림	89(3.1)	292(10.0)	382(13.1)	763(26.2)
성폭력	229(7.9)	145(5.0)	121(4.2)	495(17.0)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욕설, 협박	112(3.8)	104(3.6)	87(3.0)	303(10.4)
기타	60(2.1)	100(3.4)	89(3.1)	249(8.6)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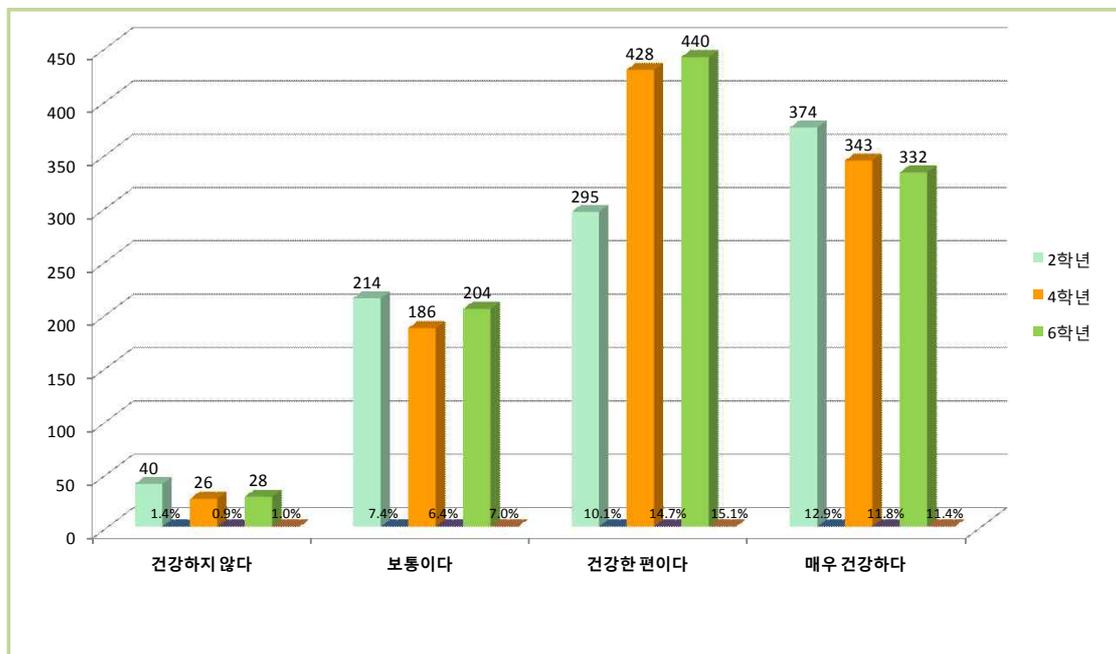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가장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은 ‘성폭력’, 4학년과 6학년은 행복을 방해하는 것을 ‘따돌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학년에게는 ‘성폭력’, 4학년과 6학년에게는 따돌림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신체폭행’, ‘욕, 인신공격’,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욕설, 협박’, ‘돈이나 물건 빼기’, ‘따돌림’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의 경우, ‘신체폭행’, ‘성폭력’,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욕설, 협박’, ‘욕, 인신공격’, ‘돈이나 물건 빼기’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의 경우, ‘신체폭행’, ‘성폭력’, ‘욕, 인신공격’,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욕설, 협박’, ‘돈이나 물건 빼기’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건강 및 안전

1. 건강 상태

구 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 체(명,%)
건강하지 않다	40(1.4)	26(0.9)	28(1.0)	94(3.2)
보통이다	214(7.4)	186(6.4)	204(7.0)	604(20.8)
건강한 편이다	295(10.1)	428(14.7)	440(15.1)	1,163(40.0)
매우 건강하다	374(12.9)	343(11.8)	332(11.4)	1,046(36.0)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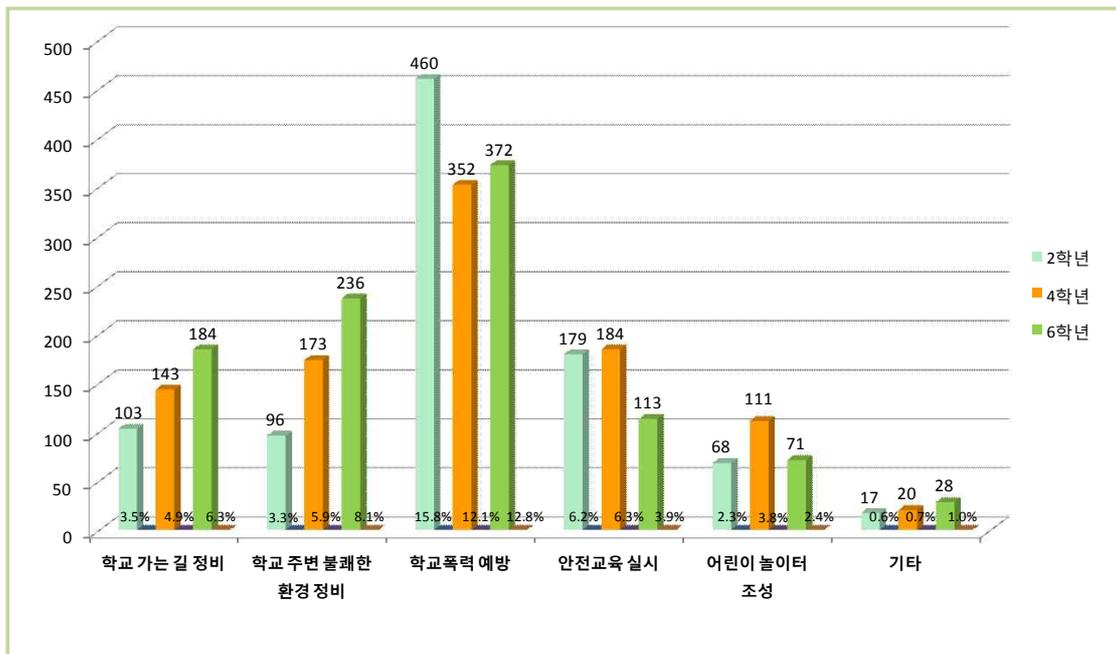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건강 상태'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은 '매우 건강하다', 4학년과 6학년은 '건강한 편이다'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상태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과 6학년의 경우, '매우 건강하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

구 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 체(명,%)
학교 가는 길 정비	103(3.5)	143(4.9)	184(6.3)	430(14.8)
학교 주변 불쾌한 환경 정비	96(3.3)	173(5.9)	236(8.1)	505(17.4)
학교폭력 예방	460(15.8)	352(12.1)	372(12.8)	1184(40.7)
안전교육 실시	179(6.2)	184(6.3)	113(3.9)	476(16.4)
어린이 놀이터 조성	68(2.3)	111(3.8)	71(2.4)	250(8.6)
기타	17(0.6)	20(0.7)	28(1.0)	65(2.2)
전 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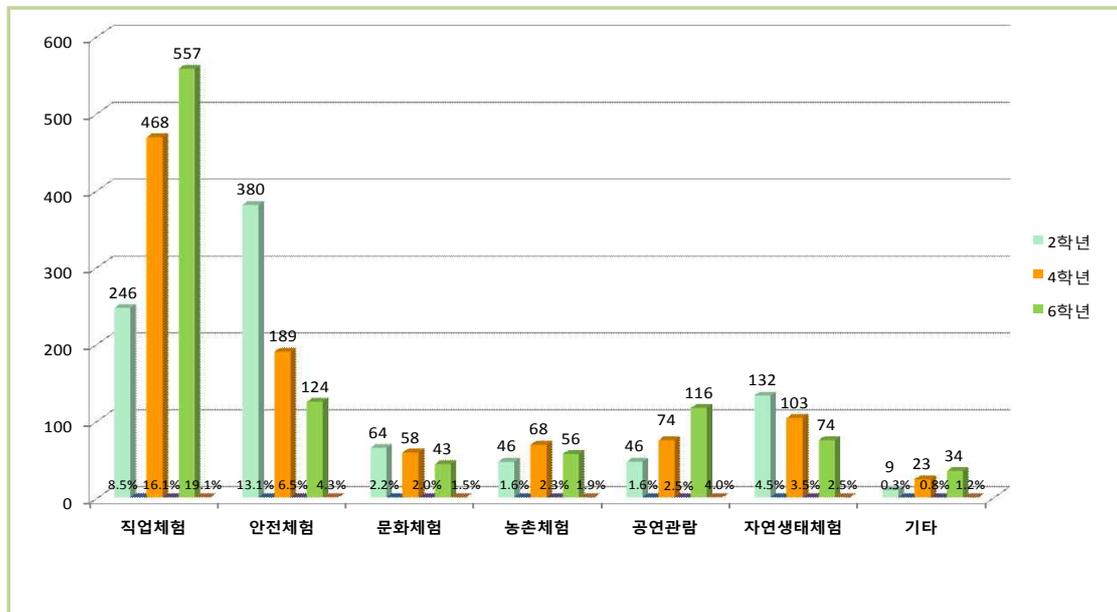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 없이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기타 응답을 한 아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안전교육 실시’, ‘학교 가는 길 정비’, ‘학교 주변 불쾌한 환경 정비’, ‘어린이 놀이터 조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의 경우, ‘안전교육 실시’, ‘학교 주변 불쾌한 환경 정비’, ‘학교 가는 길 정비’, ‘어린이 놀이터 조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의 경우, ‘학교 주변 불쾌한 환경 정비’, ‘학교 가는 길 정비’,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놀이터 조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부모와의 관계

1.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구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체(명,%)
직업체험	246(8.5)	468(16.1)	557(19.1)	1,271(43.7)
안전체험	380(13.1)	189(6.5)	124(4.3)	693(23.8)
문화체험	64(2.2)	58(2.0)	43(1.5)	165(5.7)
농촌체험	46(1.6)	68(2.3)	56(1.9)	170(5.8)
공연관람	46(1.6)	74(2.5)	116(4.0)	236(8.1)
자연생태체험	132(4.5)	103(3.5)	74(2.5)	309(10.6)
기타	9(0.3)	23(0.8)	34(1.2)	66(2.3)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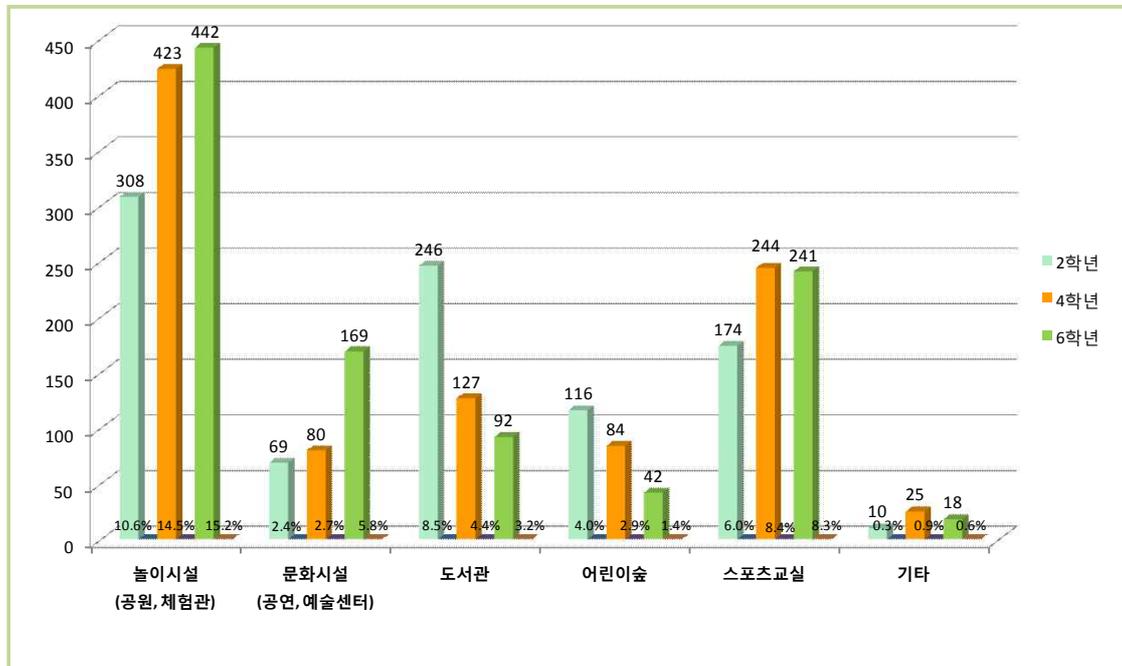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은 ‘안전체험’, 4학년과 6학년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은 ‘직업체험’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학년은 ‘안전체험’ 4학년과 6학년은 ‘직업체험’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직업체험’, ‘자연생태체험’, ‘문화체험’, ‘농촌체험’·‘공연관람’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의 경우, ‘안전체험’, ‘자연생태체험’, ‘공연관람’, ‘농촌체험’, ‘문화체험’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의 경우, ‘안전체험’, ‘공연관람’, ‘자연생태체험’, ‘농촌체험’, ‘문화체험’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 가장 필요한 이용 시설

구 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 체(명,%)
놀이시설(공원, 체험관)	308(10.6)	423(14.5)	442(15.2)	1,173(40.3)
문화시설(공연, 예술센터)	69(2.4)	80(2.7)	169(5.8)	318(10.)
도서관	246(8.5)	127(4.4)	92(3.2)	465(16.0)
어린이숲	116(4.0)	84(2.9)	42(1.4)	242(8.3)
스포츠교실	174(6.0)	244(8.4)	241(8.3)	659(22.6)
기타	10(0.3)	25(0.9)	18(0.6)	53(1.8)
전 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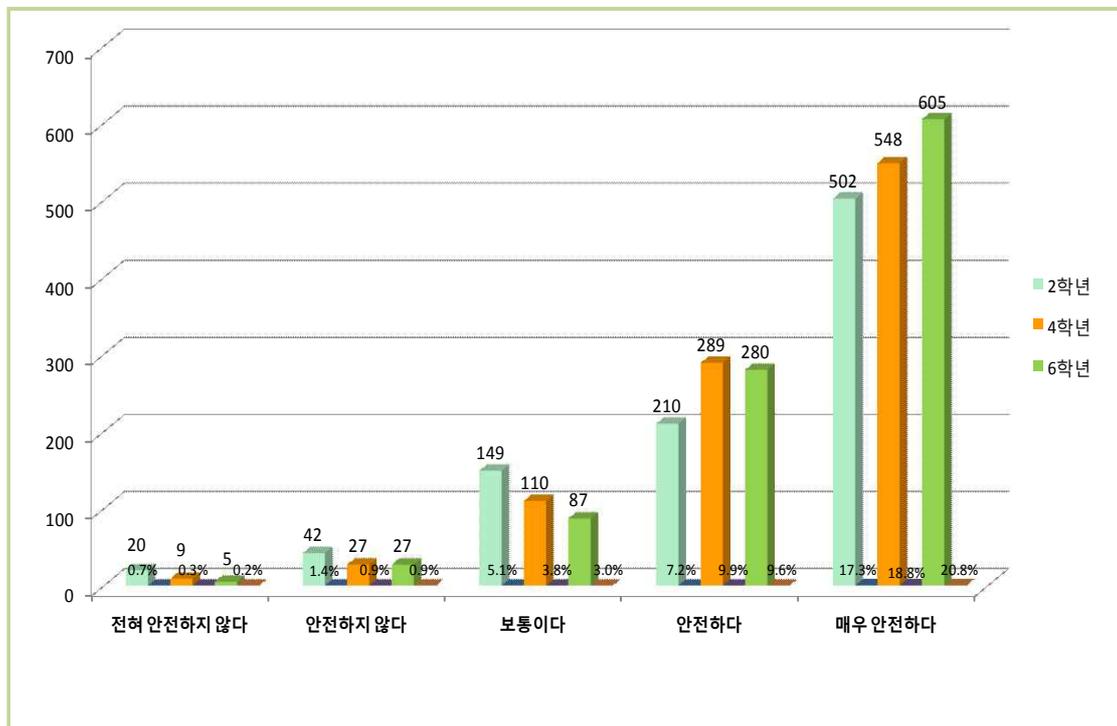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가장 필요한 이용 시설’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놀이시설(공원, 체험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가장 필요한 이용 시설은 놀이 시설(공원, 체험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필요한 이용 시설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도서관’, ‘스포츠교실’, ‘어린이숲’, ‘문화시설(공연, 예술센터)’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의 경우, ‘스포츠교실’, ‘도서관’, ‘문화시설(공연, 예술센터)’, ‘어린이숲’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의 경우, ‘스포츠교실’, ‘문화시설(공연, 예술센터)’, ‘도서관’, ‘어린이숲’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집에서 느끼는 안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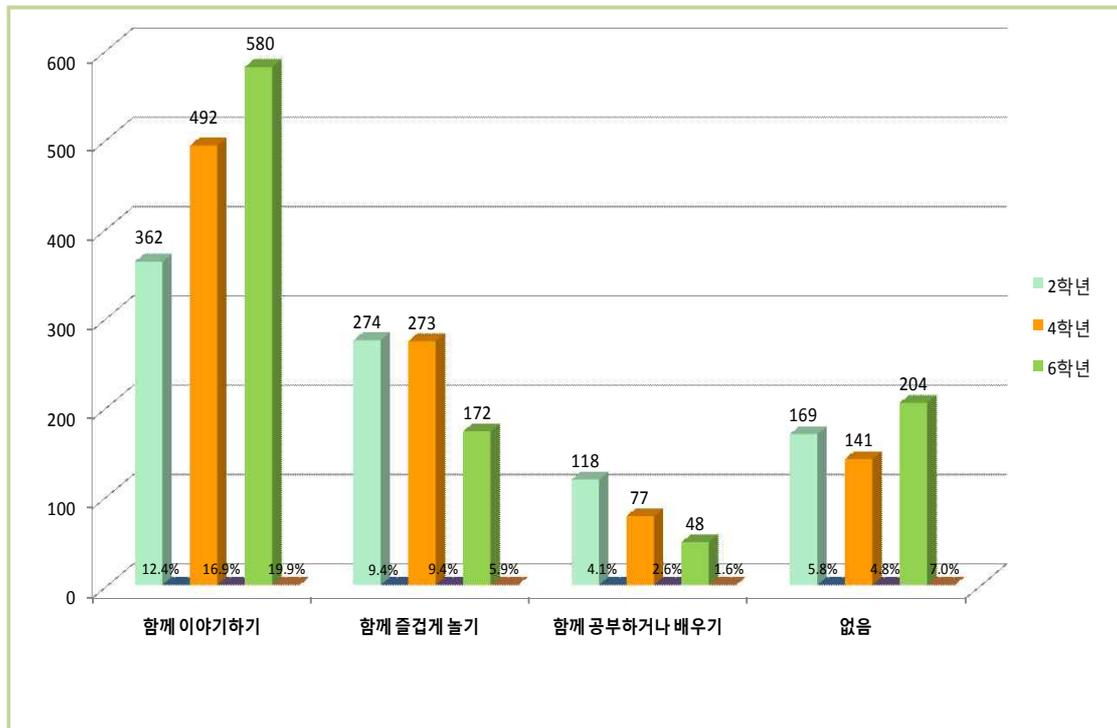
구 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 체(명,%)
전혀 안전하지 않다	20(0.7)	9(0.3)	5(0.2)	34(1.2)
안전하지 않다	42(1.4)	27(0.9)	27(0.9)	96(3.3)
보통이다	149(5.1)	110(3.8)	87(3.0)	346(11.9)
안전하다	210(7.2)	289(9.9)	280(9.6)	779(26.8)
매우 안전하다	502(17.3)	548(18.8)	605(20.8)	1,655(56.9)
전 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아동의 학년에 따라 ‘집에서 느끼는 안전 정도’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매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집에서 느끼는 안전 정도는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가족들과 자주 하는 것

구 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 체(명,%)
함께 이야기하기	362(12.4)	492(16.9)	580(19.9)	1,434(49.3)
함께 즐겁게 놀기	274(9.4)	273(9.4)	172(5.9)	719(24.7)
함께 공부하거나 배우기	118(4.1)	77(2.6)	48(1.6)	243(8.4)
없음	169(5.8)	141(4.8)	204(7.0)	514(17.7)
전 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아동의 학년에 따라 ‘가족들과 자주 하는 것’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가족과 자주 하는 것은 ‘함께 이야기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함께 즐겁게 놀기’, ‘함께 공부하거나 배우기’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집에서 가족들과 자주하는 것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인 것을 알 수 있다.

■ 생활환경 만족도

1. 동네에서 즐기며 보낼 수 있는 장소의 충분성

구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체(명,%)
매우 부족하다	95(3.3)	122(4.2)	126(4.3)	343(11.8)
부족하다	97(3.3)	187(6.4)	231(7.9)	515(17.7)
보통이다	236(8.1)	293(10.1)	334(11.5)	863(29.7)
충분하다	195(6.7)	243(8.4)	199(6.8)	637(21.9)
매우 충분하다	300(10.3)	138(4.7)	114(3.9)	552(19.0)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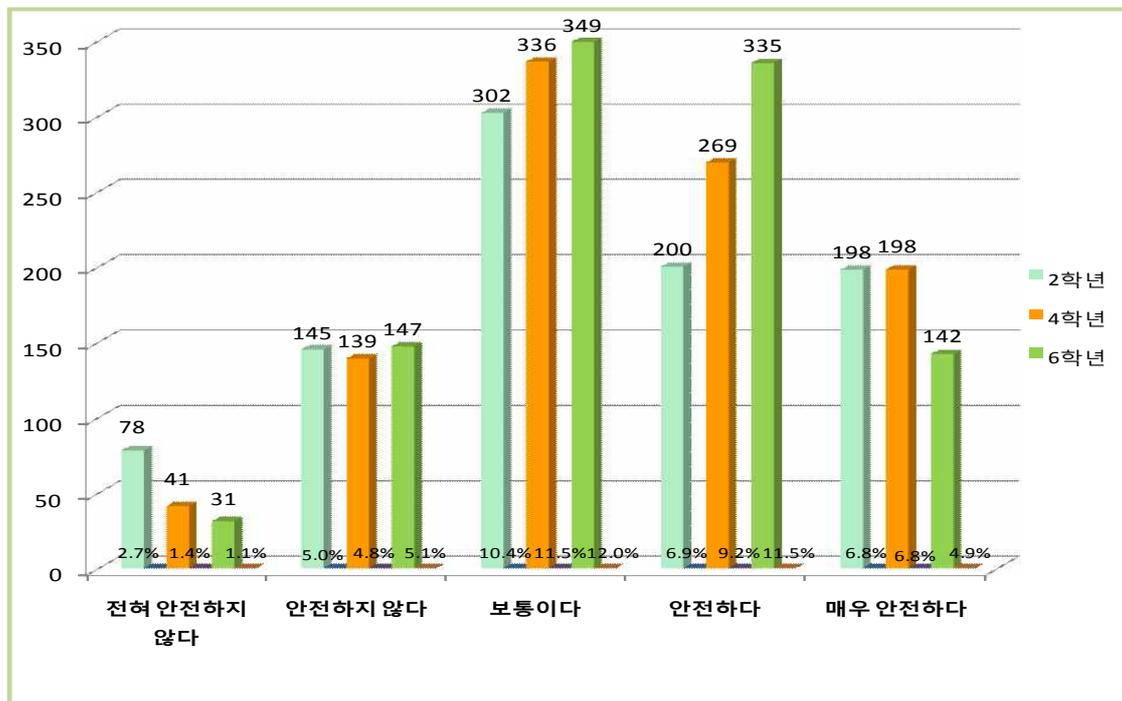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동네에서 즐기며 보낼 수 있는 장소의 충분성’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은 ‘매우 충분하다’, 4학년과 6학년은 동네에서 즐기며 보낼 수 있는 장소의 충분성은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필요한 이용 시설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은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충분하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은 ‘충분하다’, ‘부족하다’, ‘매우 충분하다’, ‘매우 부족하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은 ‘부족하다’, ‘충분하다’, ‘매우 부족하다’, ‘매우 충분하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학년은 ‘매우 충분’하게, 4학년과 6학년은 ‘보통’ 수준으로 동네에서 즐기며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 동네를 걸어 다닐 때 느끼는 안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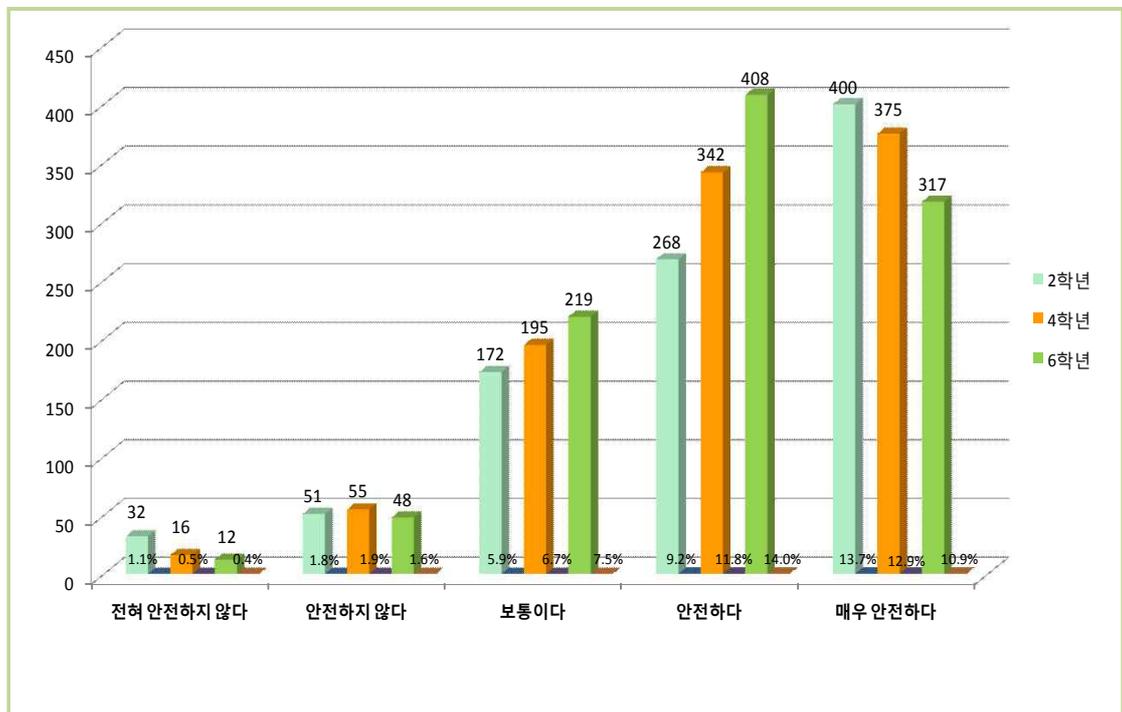
구 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 체(명,%)
전혀 안전하지 않다	78(2.7)	41(1.4)	31(1.1)	150(5.2)
안전하지 않다	145(5.0)	139(4.8)	147(5.1)	431(14.8)
보통이다	302(10.4)	336(11.5)	349(12.0)	987(33.9)
안전하다	200(6.9)	269(9.2)	335(11.5)	804(27.6)
매우 안전하다	198(6.8)	198(6.8)	142(4.9)	538(18.5)
전 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아동의 학년에 따라 ‘동네를 걸어 다닐 때 느끼는 안전 정도’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동네를 걸어 다닐 때 느끼는 안전 정도는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동네를 걸어 다닐 때 느끼는 안전 정도는 보통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3. 학교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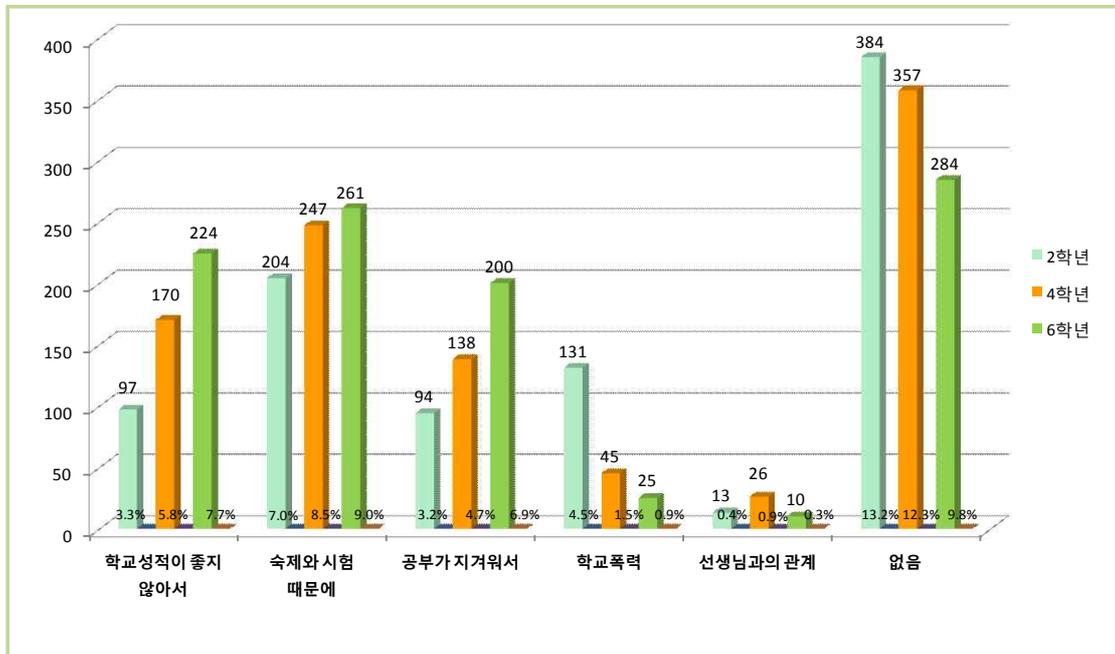
구 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 체(명,%)
전혀 안전하지 않다	32(1.1)	16(0.5)	12(0.4)	90(2.1)
안전하지 않다	51(1.8)	55(1.9)	48(1.6)	154(5.3)
보통이다	172(5.9)	195(6.7)	219(7.5)	586(20.1)
안전하다	268(9.2)	342(11.8)	408(14.0)	1,018(35.0)
매우 안전하다	400(13.7)	375(12.9)	317(10.9)	1,092(37.5)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아동의 학년에 따라 '학교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전 정도'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학년과 4학년은 '매우 안전하다', 6학년은 학교에 있을 때 느끼는 안전 정도는 '안전하다'라고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학년과 4학년은 그 다음으로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은 '매우 안전하다', '보통이다', '안전하지 않다', '전혀 안전하지 않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2학년과 4학년은 '매우 안전하다', 6학년은 '안전하다'라고 학교에 있을 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학교에서 힘든 점

구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체(명,%)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97(3.3)	170(5.8)	224(7.7)	491(16.9)
숙제와 시험 때문에	204(7.0)	247(8.5)	261(9.0)	712(24.5)
공부가 지겨워서	94(3.2)	138(4.7)	200(6.9)	432(14.8)
학교폭력(왕따)	131(4.5)	45(1.5)	25(0.9)	201(3.9)
선생님과의 관계	13(0.4)	26(0.9)	10(0.3)	49(1.7)
없음	384(13.2)	357(12.3)	284(9.8)	1,025(35.2)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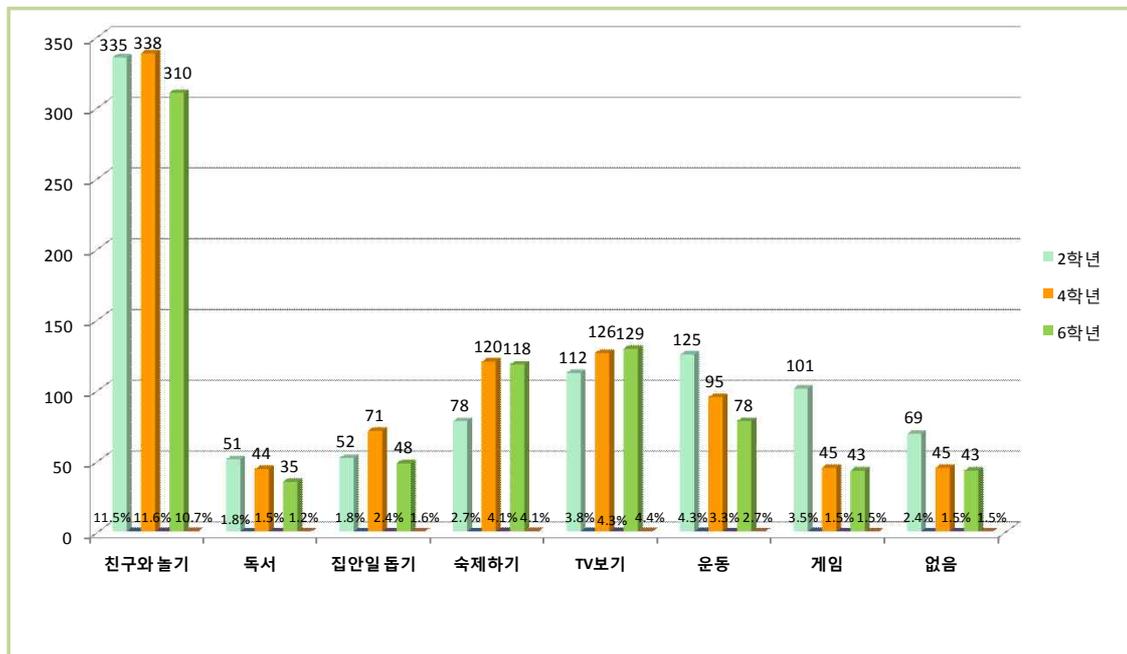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학교에서 힘든 점’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숙제와 시험’이라고 인식한 아동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힘든 점은 숙제와 시험인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힘든 점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왕따)’,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공부가 지겨워서’, ‘선생님과의 관계’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의 경우,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공부가 지겨워서’, ‘학교폭력(왕따)’, ‘선생님과의 관계’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의 경우,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공부가 지겨워서’, ‘학교폭력(왕따)’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5. 학교 밖에서 자주 하는 것

구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체(명,%)
친구와 놀기	335(11.5)	338(11.6)	310(10.7)	983(33.8)
독서	51(1.8)	44(1.5)	35(1.2)	130(4.5)
집안일 돕기	52(1.8)	71(2.4)	48(1.6)	171(5.9)
숙제하기	78(2.7)	120(4.1)	118(4.1)	316(10.9)
TV보기	112(3.8)	126(4.3)	129(4.4)	367(12.6)
운동	125(4.3)	95(3.3)	78(2.7)	298(10.2)
게임	101(3.5)	45(1.5)	43(1.5)	157(5.4)
없음	69(2.4)	45(1.5)	43(1.5)	157(5.4)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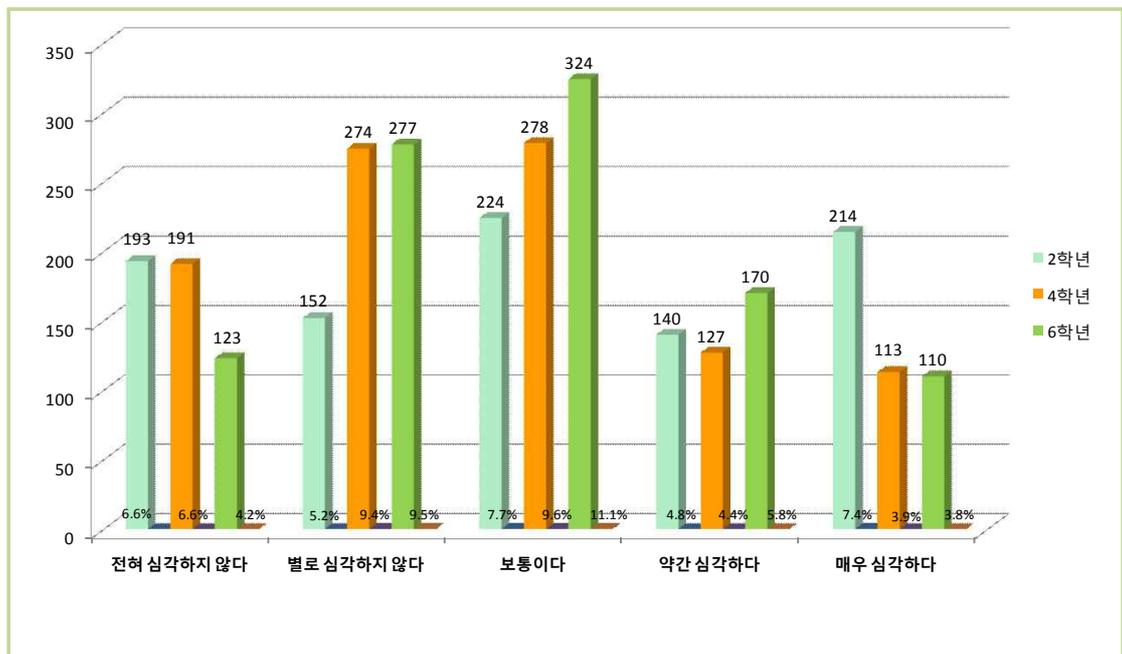


아동의 학년에 따라 ‘학교 밖에서 자주 하는 것’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학교 밖에서 자주 하는 것은 ‘친구와 놀기’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학교 밖에서 자주 하는 것은 친구와 놀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에서 자주 하는 것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운동’, ‘TV보기’, ‘게임’, ‘숙제하기’, ‘집안일 돕기’, ‘독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과 6학년의 경우, ‘TV보기’, ‘숙제하기’, ‘운동’, ‘집안일 돕기’, ‘게임’, ‘독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 학교나 집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구 분	2학년(명,%)	4학년(명,%)	6학년(명,%)	전체(명,%)
전혀 심각하지 않다	193(6.6)	191(6.6)	123(4.2)	507(17.4)
별로 심각하지 않다	152(5.2)	274(9.4)	277(9.5)	703(24.2)
보통이다	224(7.7)	278(9.6)	324(11.1)	826(28.4)
약간 심각하다	140(4.8)	127(4.4)	170(5.8)	437(15.0)
매우 심각하다	214(7.4)	113(3.9)	110(3.8)	437(15.0)
전체	923(31.7)	983(33.8)	1,004(34.5)	2,910(100.0)



아동의 학년에 따라 ‘학교나 집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2학년, 4학년, 6학년 모두 학교나 집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는 ‘보통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년에 관계없이 학교나 집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는 보통으로 알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나 집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학년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학년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6학년의 경우, ‘별로 심각하지 않다’, ‘약간 심각하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매우 심각하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